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62호

Thursday, May 28 2026 A

트럼프, 이란 협상의지 밀바닥... '마무리 작업' 검토

'임박한 돌파구' 예의주시
핵 무기 해결 주요 관심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고 테헤란에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내각 회의에서 이란 측이 보도한 "임박한 돌파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은 회의에 앞서 해당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매우 적극적이다. 그들은 협상을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분쟁과 관련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 또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분쟁으로 이란의 군사력에 입힌 피해를 강조했는데 "제가 수없이 말했듯이 그들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사라졌다. 또한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거의 힘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제안에 따르면, 이란은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국은 이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란 국영 TV는 해당 협정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로에서 군함은 제외되고 이란과 오만 이 상선 통행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테헤란을 미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안 보고서는 또한 60일 이내에 도달하는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공식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란의 보도를 단호히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문제의 메모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PBS와의 짧은 전화 통화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신속한 핵 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의 포기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제재 완화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자

환율, 미·이란 종전 협상에...1,500.20원 마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소폭 넓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정체된 가운데 달러-원 환율도 뉴욕장 들어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28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증가 대비 4.10원 떨어진 1,500.2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501.20원과 비교하면 1.00원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지난 며칠 확산됐으나 갈수록 여전히 정체 상태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각료 회의에서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합의안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만족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란 측에서도 미국과 협상에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 여러 채널을 통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고농축 우라늄 반출,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행세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군사 공격은 자제하고 있어 외환시장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오전 3시 23분께 달러-엔 환율은 159.524엔, 유로-달러 환율은 1.1625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7798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95원을 나타냈고, 역외 위안-원 환율은 221.38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제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506.70원, 저점은 1,493.60원이었다. 변동폭은 13.1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213억4천900만달러였다.



전쟁 와중에... 트럼프 900억짜리 '백악관 UFC쇼'

26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종격투기(UFC)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증장비가 거대한 금속 아치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다. 경기장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가 기획한 무대다. 대회 비용은 최소 6000만 달러(약 905억원)로 예상된다. [A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 #: 2425871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Top 50 Mortgage Company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워싱턴 DC
- * 뉴저지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 * 펜실베이니아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이미 접수된 I-485도?” 혼란 가중

변호사문의 평소보다 5배 유학생들도 불안감 확산

국내에 머무는 비이민비자 체류자의 신분조정(AOS)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가 공개된 이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는 물론 유학생 취업비자-E-2 직원비자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부터 아직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

다”며 “평소보다 문의가 약 5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은 결국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하고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국내 신분조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모씨(36)는 “관련 내용을 보고 내 케이스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정책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

했다. 지난 5월 조지아대를 졸업한 김모씨(25)도 “H-1B 등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E-2 등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까지 막히는 분위기라면 미국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번 메모의 핵심은 국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당연한 절차처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메모가 곧바로 국내 신분조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H-1B나 L-1처럼 듀얼 인텐트(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ESTA·B-2 입국 뒤 결혼하거나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새로운 재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인 커뮤니티와 유학생 게시판 등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해외 인터뷰로 넘어가는 것인가”, “E-2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남가주아시아정의진흥협회(AJSOCAL)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메모는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과 혼란을 가정에 더 큰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가족이민·취업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AOS 절차를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인 이민 경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1일, 캠프레시 근로조건 강화 66만명 식료품 지원 혜택 잃어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캠프레시) 수혜자에 대한 강화된 근로 요건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십만 명이 식료품 지원 혜택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일부 수혜자는 주당 20시간 또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로 요건은 일반 직장 근무 외에도 자원봉사, 직업훈련, 카운티 취업 프로그램, 일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충족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캠프레시 혜택은 3년 동안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주 정부는 약 66만 명이 이번 변경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연방 예산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A)’에 포함된 내용이다.

송운서 기자

주한이란대사 “나무호 공격 모두 부인”

27일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사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에 발생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적대국들의 가짜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성은 부인했다.

또 “그쪽 지역(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해적행위 같은 것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미국 정권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의 행위의 여파”라고도 덧붙였다.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으로 학생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기만적 작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금 중동에서 발생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27일 HMM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이란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 차관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었던 HMM 나무호 피격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

고 있다”며 “대사를 초치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공격당한 지 23일 만에 공격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지목했다.

신혜연 기자

캐나다, 美보잉 대신 스웨덴 조기경보기 선택

F-35 축소 검토 이어 유럽 방산 밀착

캐나다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세대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보잉 대신 스웨덴 사브의 기종을 선택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 오타와에서 열린 방산회의에서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제트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기종으로, 캐나다 항공산업 및 현지 공급망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미국의 보잉 E-7 ‘웨지테일’도 경쟁 후보에 올랐으나,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이 제기되며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캐나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조기경보기 6대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방대한 북극권 영토 전역의 위협을 감지하고 억제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그동안 북극 감시를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최근 들어 독자적인 감시·정찰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브 측은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캐나다 내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울프 크리스티슨 스웨덴 총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결정이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과 무역 전쟁 속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방위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전략적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날씨 (°F)

29일(금)	80-60	☀️	1일(월)	78-55	☁️
30일(토)	78-51	☀️	2일(화)	76-54	☀️
31일(일)	75-56	☁️	3일(수)	76-57	☁️

5월 28일(목) 81-5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장로교회 근처 5 에이커 전원주택 \$1,050,000 특집	레스턴 싱글루 셀러 클럽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집	현역 럭셔리 타운홈 \$850,000 특집
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욕 3	차고 2, 방 5, 욕 3, 워드아웃 부엌	차고 3, 방 3, 욕 3

왓츠 앤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굤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페어팩스시, 버지니아주 내 인구증가율 1위

연방 인구조사국 발표

2020-25년, 10.88% 증가

한인이 밀집해 있는 페어팩스 시는 버지니아주 내 유사한 지역들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어팩스 시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인구 2만 명 이상인 버지니아주 도시 중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방 인구조사국이 2025년 5월에 발표한 인구 추정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페어팩스 시의 인구는 2020년 2만4146명에서 2025년 2만6772명으로 10.88% 늘어났다.

미주 전역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Every City in the USA'에 의하면, 페어팩스 시는

서퍽 시를 0.002%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으며, 알렉산드리아 시는 같은 기간 동안 0.75% 성장률을 기록했다. 연간 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2023년과 2024년 사이로, 이 기간 동안 도시 인구가 968명 증가했고,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는 734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했다.

또한 페어팩스 시를 인근 비엔나 시와 비교했을 때, 비엔나의 인구는 2020년 1만6475명에서 2025년 1만6601명으로 216명, 즉 1.31% 증가했다.

이같은 인구 증가 추세와 관련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페어팩스 시는 기가비트급 광대역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버지니아 지역 중 하나로 꼽았다. 페어팩스 시에서 광대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주거 지역의 약 39.4%가 최소 1기가비트/초의 다운로드 속도와 최소 100메가비트/초의 업



페어팩스시 중심가에 오픈한 피클볼 구장 개업식에 주요 내빈들이 참석 축하를 하고 있다.

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페어팩스 시에서 의료 및 사회 복지 분야는 39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민간 부문 산업이었다.

연방 노동통계자료에 따르면, 페어

팩스 시의 평균 실업률은 2.4%로 알렉산드리아 시, 폴스 처치 시, 매나사스 파크 시의 실업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캐서린 리드 시장은 이러한 성장의 원인을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넓은 부지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가로 구성된 지역에 고밀도 주택

을 더 많이 건설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 살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모 씨는 "페어팩스 시는 접근성, 고학력 인력, 기업이 정선, 활기찬 삶의 질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새로운 주민과 기업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 포함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 '주춤'

3월 HPI 441.50 기록

유가, 모기지 금리 영향

한동안 상향 곡선을 그리던 주택가격이 한풀 꺾이고 있다.

이는 이란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제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3월 주택가격지수(HPI)가 441.50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월 대비 0.1% 오른 수치다. 또한 3월 주택가격은 전

년 동월 대비로는 1.7%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주택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올랐다.

FHFA 주택가격지수는 양대 국제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전국 주별로 보면 42개 주에서 주택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 8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택가격이 떨어졌다.

이란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국제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 만기 국제 흐름에 따라 움

직임이 높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주 평균 6.5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세 둔화는 S&P 코어모직 케이 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서도 나타났는데, 해당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올라 2월 상승률 0.8%보다 낮아져, 202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0.8%에 그쳤는데, 이는 202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김성환 기자

주님의 교회, 다음달 14일 'QT세미나' 개최

버지니아 센터빌 소재 주님의 교회(담임목사 문경두)가 오는 6월 14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를 주제로 제10회 QT세미나를 연다.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는, 강사로 나서는 문경두 목사와 김준욱 주님의 교회 QT 세미나디렉터가 '경건훈련이란' 그리고 '경건의 시간'이란 내용으로 관찰, 연구, 묵상, 적용, 나눔, 그리고 실습으로 나누어서 심도있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며 선착순 50명이

입장할 수 있다.

모집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지만 '생명의 삶 6월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워크숍은 6월 16일(화) 오후 7시30분에 주님의 교회에서 열린다.

신청: 전화 703-859-2001, 571-217-4937, tjimihong@gmail.com

장소: 13941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0

문의: 703-859-2001 (주님의 교회)

홍알벗 기자

월드미션칼리지 학위 수여식 30일 개최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월드미션칼리지가 오는 5월 30일(토) 오후 4시 캠퍼스에서 제10회 학위 수여식을 연다

이번에 학위를 받는 수여자는 신학사 김성덕, 배훈영, 팅팅 후(Ting Ting Hu), 교육학 석사는 크레그 마클리

(Craig Markley), 조신형, 김조이, 목회학 석사는 오준일, 박서인, 그리고 목회학 박사는 홍수정, 제시 키로비(Jesse Kirobi), 로날드 모야(Ronald Moyia), 안드레아 발로뉴 (Andrea Balogne) 등 총 12명이다.

월드미션칼리지는 선교 및 기독교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 신학교로, 온전한 신학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월드미션칼리지에는 아프리카 케냐를 비롯해 탄자니아와 가나, 몽고, 베트남, 중국, 브라질, 그리고 한국

등 전세계 곳곳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주소: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 www.wmcg.edu

문의: admin@wmcg.edu

홍알벗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컷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립(대사) 연방외교수령사사
- 성경중의대학 중의과박사
- 임상 25년 경험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NEW HOME

Fairlakes, VA | Reston, VA | Ellicott City, MD
Falls Church, VA | Ashburn, VA | Bethesda, MD

기업체 & 상가 매물 안내

NEW 워싱턴시 정부입주건물 델리
안정적 매출, 임대료 한달 \$2750
매매가 2만불

세탁소/ 리즈버그 지역 / 공장
마진높아 남는것이 많습니다 / 매매 25만불

메릴랜드 델리 매매가 7만불

맥도날드 건물
구입하셔서 임대수입 얻으실분 찾습니다

CAR WASH
찾아드리고 매매해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세차장 리스팅 원비

사무실, 병원, 창고, 공장 / 랜드 / 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수입 꾸준한 사업체 매물있습니다
메니저먼트만하면서 수입좋은 매물있습니다
50만불에서 3백만불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ICE, 무차별 진압 앤디 김도 당했다

시위현장서 최루액 맞아 당국은 '선동가'로 역공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이 시위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25일 뉴저지주 뉴왁 델레이니 홀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위는 ICE 구금시설의 비인도적 처우 논란과 관련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ICE 요원 간 충돌을 막던 김 의원은 요원들이 분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아 쓰러졌다.

시위 영상 등에 따르면 시위대 일부는 인간 띠를 만들어 ICE 차량 이동을 막았다. 김 의원은 요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직접 서서 충돌 중재에 나섰지만, ICE 측이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전진 배치하며 시위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최루 스프레이 등이 사용됐다.

현장 영상에는 김 의원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눈을 씻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손 부상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 했지만 ICE가 계속 밀고 들어왔다"며 "무장한 요원들이 최루 스프레이와 진압 장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열악한 처우 문제에 답하기보다 ICE는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시위대를 폭도, 선동가 등으로 규정했다. DHS는 "피난처 도시 정치인들이 정치



앤디 김 의원이 최루액 때문에 응급 처치를 받고 있다. [Jelani Gibson/NJ.com]

적 소를 벌이고 있다"며 "시설에는 단식 농성이나 열악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ICE 구금시설 처우 논란은 가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주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주 내 ICE 구금시설에서 최소 6명이 숨졌다. 2017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망자 4명은 샌버나디노카운티 아델란도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의료 인력 부족과 치료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이후 가주 내 ICE 구금시설 수용 인원은 2023년 2303명에서 지난해 6028명으로 약 16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A타임스는 ICE 및 연방 요원 단속 과정에서 부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는 시민·이민자들의 연방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현재까지 최소 2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26일 보도했다. **강한길 기자**

가든그로브 화학사고에 주민 지원 본격화

호텔 할인·무료 우버·샤워도 피해 업무에 SBA 신청 권고 사태 수습 뒤 보상 쟁점 부상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화학탱크 누출 위험 사태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피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26일 지역 주민 지원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애너하임시는 피해 업주들을 돕기 위한 첫 단계로 경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관련 지역 숙박업체들은 대피 주민들을 위해 긴급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힐튼 애너하임은 대피 주민 특별 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특별 요금으로 1박 99달러와 차량 1대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레이트 올프 랫지와 애너하임 메리어트도 각각 99달러 특별 요금을 운영 중이다.

교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버는 대피 주민들에게 최대 40달러 상당의 무료 차량 서비스 2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우버 앱 웰렛 메뉴에서 프

로모션 코드 'OCSAFE26'을 입력한 뒤 지정 대피소를 오가는 차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4 피트니스'는 오렌지카운티 전 지역에서 대피 주민들에게 화장실과 샤워 시설, 냉방 공간,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래닛 피트니스와 LA 피트니스 역시 일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이삿짐 업체 유홀도 화학사고로 대피한 주민들에게 최대 30일 무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노동력·경제개발위원회(OCWDB)는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업주들에게 연방중소기업청(SBA)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제출을 권고했다. 업주들은 OCWDB 웹사이트(workforce.ocgov.com)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EOCLiaison@ocsheriff.gov)로 제출하면 되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지원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유출이나 독성 증기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

가들은 MMA(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노출 자체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사용했던 일반 마스크로는 유기 화학물질인 MMA 증기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피해 주민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나 가주 정부 차원의 직접 현금 보상 프로그램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엑스(X) 로펌과 프레시디오 로펌 등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에는 호텔비와 임시 거주비, 영업 손실, 재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한 보상 요구가 포함됐다. 피해 주민들은 웹사이트(GKNGardenGrove.com)에 접속해 피해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다.

한편 대피 지역에서는 빈집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 인근 대피 구역에서 현재까지 총 7명이 절도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민 대피로 비어 있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대폭 늘리고 집중 순찰에 나섰다. **이은영 기자**

타운에 펼쳐지는 '월드컵 응원 배너'

본지 응원 배너 120개 설치 한인 기업, 단체들도 동참 태극기 바탕 브랜드명 담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한인사회의 응원 열기가 마침내 LA 한인타운 거리 위에 펼쳐졌다.

미주중앙일보가 진행한 '월드컵 응원 배너 캠페인' 배너들이 지난 21일부터 한인타운 주요 도로 가로등에 설치되며 거리 응원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배너 캠페인에는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등 한인 은행권을 비롯해 롯데주류, 롯데리아, 쇼인터내셔널(한라산), 강드림재단, 옛지마인, 김앤리회계법인, 최미수 변호사, 브래드 리(이혁)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또 LA시 10지구 헤더 허트 시의원, LA한인회, LA상공회의소, LA민주평통, LA재미체육회, LA한인축제재단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함께했다.

배너는 LA 한인타운 주요 도로 4개 구간 가로등 120개에 설치됐다. 태극기



월드컵을 앞두고 LA한인타운 올림픽 블라바드에 설치된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 및 승리기원 배너들. **김상진 기자**

를 바탕으로 한 응원 문구와 참여 업체 브랜드가 양면에 함께 담겼다. 배너는 오는 7월까지 약 두 달간 24시간 노출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인사회 전체가 함께 만드는 거리 응원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LA에서는 미국 대표팀 경기 등을 포함해 월드컵 8경기 가 열릴 예정이어서 전 세계 관광객과 축구 팬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길 기자**

참여 업체들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한인사회와 함께 응원 열기를 나누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자는 취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미주중앙일보 측은 "월드컵 기간 한인타운 전체가 하나의 응원 거리이자 미디어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한인사회의 열정도 거리 곳곳에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가주 DMV 네트워크 장애

먼저, 신분증 발급에 차질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26일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

DMV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주 전역 DMV 사무소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발급·처리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DMV 측은 정확한 장애 발생

시점과 원인, 지역 사무소별 피해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쯤 DMV는 네트워크 장애가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 장애 문제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DMV 사무소들은 장애가 발생한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주행시험 등 가능한 업무는 계속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알림 대한민국 6월 3일 지방선거에 100% 투표 참여합시다!

- 고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 자매, 친지, 학교 동문회, 지역 향우회, 군 향군 친구, 시민단체 등 전화로 투표 참여 독려하세요.
-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 35%가 전과자이며, 심지어 전과 12범 출신의 후보자도 있습니다.
- 지방선거는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대표들을 뽑는 선거이니,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함께 하는 단체:
마산 3.15 부정선거 위원, 워싱턴 동포 정화 위원회

6월 3일 지방선거

워싱턴 노인연합회 회장 우태 창

“뛰고 싶어도 코치가 없어요”

패럴림픽 꿈꾸지만 지원 끊겨
자폐 러너 리처드 김 훈련 중단
“한인사회 관심과 지원 절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인 청년 리처드 김(23)씨는 뛰고 싶지만 뛰질 못하고 있다.

실력은 이미 정상급 장거리 러너다. 2024년 라스베이거스 ‘레벨 마운트 찰스톤 하프마라톤’에서 1시간12분16초 기록으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참가자 1434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빅베어 하프마라톤에서도 전체 7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은 멈췄다. 2027년 호주 퍼스 스포셜올림픽과 LA28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며 코치 역할을 해오던 아버지가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어머니 유니스 윤씨는 “리처드는 반드시 옆에서 함께 뛰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코치가 필요하다”며 “재능은 충분하는데 훈련을 이어갈 환경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하지 못한 채 다음 달 5-6일 텍사스 델러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LA지부 선수단도 참가한다. 태권도·골프·마라톤·한궁·400m 달리기 종목에 리처드 김씨를 비롯해 김지수, 임한울, 임선울, 이정은, 유니스 김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제3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LA 대표 선수들. 왼쪽부터 다이앤 김, 리처드 김, 나키 정, 김지수. 김상진 기자

선수들 사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발달장애를 가진 김지수(37)씨는 태권도 경력 33년의 공인 5단이다. 그는 2022년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다. 최근에는 골프까지 시작해 이번 대회에서는 태권도와 골프 두 종목에 도전한다.

하지만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늘 비용이다. 항공료와 숙박비, 장비 비용까지 모두 개인 부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지수씨의 어머니 김인숙씨는 “장애인 자녀들이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2030년 제4회 대회가 LA에서 열리는 만큼 한인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베틀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많다”며 “그런데도 LA에는 장애인 스포츠를 꾸준히 후원하는 단체나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은 기회를 주면 정말 많이 성장한다”며 “한인사회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출범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 해외지부로 승인받았다. 2023년부터는 한국 전국장애인체전에도 공식 해외 선수단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후 2년마다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대회는 2022년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700명이 참가했다. LA 선수단은 태권도·수영·육상·골프·볼링·탁구·보치아·한궁 등에 출전했다. 2024년 메릴랜드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는 미주 12개주 선수단과 약 800명이 참가했지만, LA지부는 재정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다.

▶문의: (213)446-3130

이은영 기자

“월드컵 단체 응원, 안심하고 오세요”

연방 요원 불체자 단속 우려에
배스 시장 “ICE 요원들 없을 것”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LA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을 개최하는 ‘2026 월드컵 LA한인준비위원회(LA REDS·이하 LA 레드)’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A 레드 측은 26일 한인타운 리버티 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 응원전 현장에는 LA경찰국(LAPD) 경관과 LA소방국(LAFD) 소방관들이 상주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시설 경비업체 인력도 배치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 레드는 내달 한인타운에서 총 세 차례 거리 응원전을 개최한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일인 내달 11일 오후 7시 리버티공원에서 첫 응원전(체코)이 열리며, 18일 오후 6시에는 서울국제공원에서 2차 응원전(멕시코)이 진행된다. 3차 응원전(남아프리카공화국)은 24일 오후 6시 리버티공원에서다

시 열린다. 사전 행사 등은 단체 응원전이 열리기 약 5시간 전부터 진행된다.

제프 이 LA한인회 사무국장은 “헤더 허트(10지구) LA시의원실 지원으로 LAPD와 LAFD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실 경비업체는 LA 레드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LA 레드가 안전 대책을 강조한 것은 월드컵 기간 불체 단속 가능성에 대한 이민 사회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캐런 배스 LA시장은 “ICE 요원들이 어떤 응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레드는 거리 응원전을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응원전마다 선착순 1000명에게 붉은악마 티셔츠와 응원 도구가 무료로 제공된다. 대한항공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포함한 각종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된다. 시니어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별도 시니어 존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캐런 배스 LA시장이 월드컵 기간 한인타운 단체 응원전에 ICE 요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오답노트에 또 오답 쓴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부족. 민주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참패 원인으로 내린 결론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지난 21일 공개한 192쪽 분량의 ‘2024 대선 패배 분석 보

고서’에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쓰는 오답노트인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오답노트에 또 다른 오답을 썼다.

민주당 정치 전략가 폴 리베라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이 트럼프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트럼프의 중범죄 유죄 판결 등 공격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유권자들 사이에 굳

어져 있다고 본 판단 자체가 오판이었다고 평가했다.

패배 원인으로 내놓은 답이 결국 ‘상대 후보를 더 세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다. 당내 열성 지지파의 결집을 다지는 효과는 있으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이 미

치는 어렵다는 게 중평이다.

보고서에는 얼마든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담길 수 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경제 정책의 구체성 부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 실패 등에 대해선 깊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 등)
웨이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기름도 물도 동났다... 강바닥 파헤치는 인도 Z세대

인도 젊은층, 정부에 분노 폭발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기록적 폭염에 식수대란까지 겹쳐 정치권 풍자 '바퀴벌레국민당' 인기 다급한 모디, 미 원유 수입 늘리기로

인도가 에너지 위기발 민생고로 흔들리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는 급등하는데 기록적 폭염으로 에너지 수요는 늘자, 청년층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일단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모색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인도 서부 산업지대인 구자라트·마하라슈트라와 북부 타르파라데시에서는 연료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시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국영 주유소에 몰리며 혼란이 커진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섰다. 수자타 샤르마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는

지난 25일 "일부 지역에서 석유 수요가 20~30% 급증했다"며 "전국에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경유 재고는 충분하니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인도는 원유의 약 40%, LPG의 90%, 천연가스의 65%를 중동에 기대고 있다. 호르즈즈해협 위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록적 폭염으로 수요가 폭증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26일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수도 델리 일대 기온은 최근 45도를 웃돌았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물 부족도 심각해 특히 중부·서부 농촌 지역에선 주민들이 강바닥을 파 물을 길어 쓰는 상황이다.

그러자 청년층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인도 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 온라인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그 예다. "일 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이 중 일부는 바퀴벌레처럼 언론·소셜미디어에서 모두를 공격한다"는 수리야 칸



최근 인도 서부 일부 산업지대에서 원유 품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구자라트의 한 주유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연료를 채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 대법원장의 발언을 풍자하며 출범한 단체로, 기성 정치권을 겨냥한 게시물을 올린다. 16일 활동을 시작한 11일 만인 27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281만 명을 넘어섰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공식 계정 팔로워 수(938만 명)를 앞질렀다. 아비지트 데베 CJP 창립자는 로이터통신에 "주류 정치에서 배제된 젊은이들이 인도를 바꾸려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과 밀착하며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인도는 26일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 외교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에너지 공급, 해상 안보 등을 협의했다. 인도는 미국산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도 고려 중이다. 에너지분석업체 아거스미디아는 "인도가 최근 미국 에너지 도입 채널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지혜 기자**

천조국의 미친 스케일...월드컵 위해 9조짜리 풋볼장 뜯어고쳤다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 미국 프로스포츠 최고 럭셔리 경기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와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풋볼)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와 차저스의 홈인 이 경기장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장으로 대대적인 '성형수술' 중이다. 월드컵 개막을 약 2주 앞둔 이날, 경기장 주변엔 바리케이드가 촘촘히 쌓여 외부인 출입을 막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 이곳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미국 측 개막전을 치른다. 소파이 스타디움이 월드컵 간판 경기장으로 낙점된 건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 때문이다. LA의 메이저리그사커 LAFC(2만2000석) 등은 FIFA의 메인 경기장 기준(8만석)에 한참 못 미친다. 2020년 개장한 소파이 스타디움은 최대 10만 명을 수용하며, 건설 비용만 9조원이 든 초호화 구장이다. 그라운드 중앙 37m 상공에 걸린 축구장 크기의 360도 원형 스크린(삼성전자 인피니티 스크린)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풋볼장에서 축구장으로 변신할 때



소파이스타디움은 원래 인조잔디가 깔린 NFL 경기장이다. [연합뉴스]



그라운드 37m 상공의 스크린은 또 다른 명물이다. [연합뉴스]

가장 큰 장벽은 '필드 가로 폭'이었다. NFL 구장은 관중 몰입감을 위해 관중석을 필드에 바짝 붙여 설계한다. NFL 필드 폭은 약 49m인 반면, FIFA 국제 규격은 최소 68m에 터치라인 밖 여유 공간까지 요구한다. 결국 소파이 스타디움은 경기장 하단 코너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깎아내야 했다. NFL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1회성 축구대회를 위해 진짜 주인인 NFL 팬들의 시야와 좌석을 훼손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기장 곳곳에선 '이름 지우기' 작업도 한창이었다. 공식 후원사 외의 상업적 노출을 금지하는 FIFA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에 명명권을 산 금융기업 '소파이'의 로고와 구조물을 임시로 가리는 작업이다.

월드컵 기간 이 경기장의 공식 명칭은 'LA 스타디움'으로 바뀐다. 리모델링과 잔디 교체에 투입된 비용만 1000만 달러(약 151억원) 이상이다. 오토 베네딕트 소파이 스타디움 운영 총괄은 "워싱턴주에서 냉장 트럭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운송해 온 잔디라 최상의 품질"이라고 자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호화 스타디움이 있는 잉글우드는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 계층이 모여 사는 서민 동네다. 대낮에도 녀마를 걸친 노숙자들을 어

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수시로 고막을 찔렀다. 우버 기사 사이언은 "이곳 사람이 아니면 낮에도 혼자 걷는 건 위험하다"며 "월드컵을 한다 해도 주민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월드컵 홍보물이나 축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민 상당수는 당장 다음 달 동네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26일 기준 미국 개막전 티켓 최저가는 2155달러(약 326만 원)다.

30대 흑인 남성 마일로는 "한 달 방세에 맞먹는 티켓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LA 축구 열기의 진짜 주역인 히

스패닉과 서민들은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경기장은 축구에 별 관심 없는 상류층의 사교 장소가 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다.

잉글우드에서만 63년을 살았다는 저메인은 이곳에 있던 NBA LA 레이커스의 홈구장(그레이트 웨스턴 포럼) 시절을 떠올리며 "그땐 큰돈이 없어도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농구를 즐겼다"고 했다. 경기장 주변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린 교포 제이 김씨는 "가격을 보고 기겁했다. 그 돈으로 가을 NFL 경기를 여러 번 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피주영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레이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무 점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t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1451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kim@prospert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NK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챌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로터/침/침(침+마)와 챌들리 로터에서 각각 5분거리

LOTTE PLAZA **market**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MAY 28TH-JUNE 4TH, 2026

따뜻한 집밥 한 그릇
햇반으로 간편하게
 Warm Cooked White Rice, Ready in Minutes



\$999 **\$1799**
12 X 210 G

편집중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a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a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이재명 vs 박근혜’ 여야 마케팅 전쟁

지방선거 D-6, 전현직 대리전 양상
대통령, 김해·창원·부산 잇단 방문
여당은 대통령 방문 언급하며 유세

박근혜, 충청·울산·부산 등 전국순회
야당 “보수층 결집에 큰 도움 될 것”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7일 최대 격전지 부산을 나란히 찾았다. 부산·울산·경남(PK) 등 동남권에서의 승패가 전체 선거 승리의 척도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한날 순차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승리에 대한 열망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전투표(29~30일)를 이틀 앞둔 27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이 차례로 부산을 찾자 정치권은 술렁였다.

비록 국민의힘 ‘선거 지원’을 전면에서 내세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국가 행사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전현직 대통령의 영남권 대리전”(박동원 풀리컴 대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정치권에선 “양 진영 모두 최강의 카드를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PK의 상징적 인물인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대한민국을 해양 강

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겠다”며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회의를 주재한 뒤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남항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엔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현황 보고까지 받으며 PK에 1박2일을 머물렀다.

침와대는 “대통령을 선거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 달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통령의 이달 동선은 동남권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부산 방문 전에도 울산 HD현대중공업(13일)→대구 군위(15일)→경북 안동(18~19일)→경남 김해(23일)→창원(26일)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마케팅”을 벌였다. 지지율 60% 안팎의 현직 대통령을 앞세운 ‘여당 프리미엄’ 선거 전략인 셈이다.

이 같은 고공전에 맞설 마땅한 카드가 없던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 친박계 인사를 돕는 차원에서 유세 지원이 시작됐지만 현장 반응이 좋아 전국적 지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기장시장을 둘러본 뒤 차량에 탑승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지원에 나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 결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충북·대전·충남(25일)→경남 진주 및 울산·부산(27일)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자들

과의 잇따른 악수에 팔이 아파 얼굴을 찡그리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부산 기장시장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도 동행했다. 마이크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자갈치시장과 구포시장도 오늘(27일)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상 가지 못해서 좀 아쉽다”며 운을 뗐다.

이어 “박형준 시장 후보께서 앞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민식 후보에 대해선 “박 후보의 아버님께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을 알고 있다”며 “박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등판에 여야는 서로 견제구를 날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선거 전면 등판이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태근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핵심 요충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극한으로 치닫는 강성 당원 중심 정치의 한계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상징 자본’으로 쓰여야 할 대통령직이 선거에 활용됐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이재욱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양당이 전현직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기댄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양당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양상”이라고 했다. 조귀동 민 컨설팅 전략실장은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할 전현직 대통령이 선거 때 큰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이미 등판한 만큼 부·울·경 선거의 정치적 판돈이 확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박태인·오소영·류효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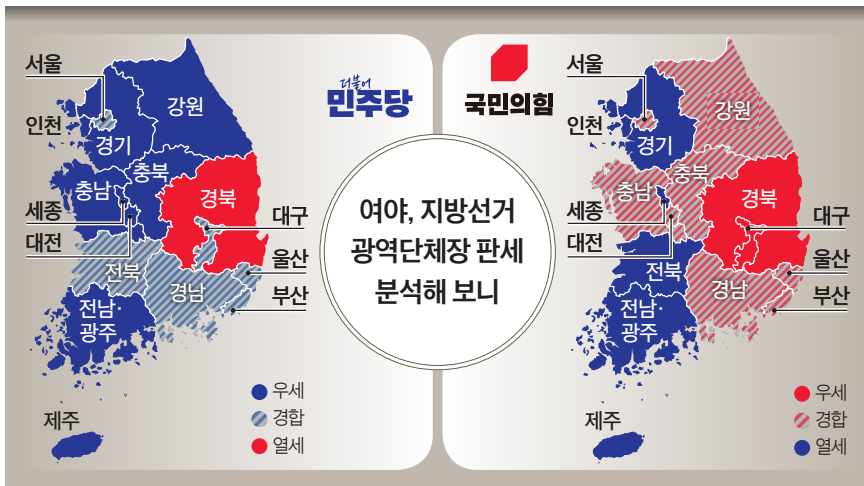
민주 “우세9 경합6 열세1” 국힘 “우세2 경합8 열세6”

여야가 본 광역단체장 16곳 판세
양당 모두 “서울·부울경은 격전지”
충남·대전·강원, 여 “우세” 야 “접전”

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15대 1 압승(광역단체장 기준)까지 관측되던 선거 초반에 비해 급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에 “9곳 우세, 6곳 접전에 경북 한 곳은 열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대구·경북은 확실히 잡고 가고, 강원·충남을 포함해 8곳 경합, 6곳 열세”라고 말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격전지로 꼽았다. KBS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5일 서울 시민 800명을 무선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정영오 민주당 후보 42%, 현직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6%를 기록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의뢰로 지난 20~21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영오 47.4%, 오세훈 41.9%였다.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현직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붙은 부산시장 선거에선 최근 여론조사가 널뛰기 중이다. 리얼미터·뉴스핌의 23~24일 무선 ARS 조사에서 전재수 44.8%, 박형준 42.8%로 2%포인트 격차였고, 한국리



서치·KBS의 21~25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선 전재수 46%, 박형준 34%로 12%포인트 차이였다.

울산과 경남에선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에 물꼬를 트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김나한·박준규 기자

1. 찬들리 하이싱글 \$1,379,000
방5, 화4.5, 차고2, 콘택, 포플라트리 초동, 최고 학교, 잘 관리된 집
새 지붕 (2018) 및 HVAC 시스템 교체 (2019), 내부 새 페인트, 석기세척기 교체,
조경 및 멀치 정비 (2026), 뉴 메인 트랜징, 2차링 환풍기 교체
주방 가전 업데이트 (냉장고, 전자레인지, 쿡탑, 더블 오븐 / 2018 - 2026)
바닥재 업그레이드 (침실 및 지하 카펫, 지하 침실 LVT 바닥)

6.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표랑,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2. 현존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4. 개인스빌 골프싱글 SOLD \$1,060,000
개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싱글

7. 알디싱글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3. 센터빌 스트리트 콘도 \$390,000
방2, 화2,
클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

5.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8. 알링턴 아미네이비 콘도 \$345,000
Coming Soon
방1, 화1, 2000년,
700 sqft,
DC 근교 교통유지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마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이구 한방병원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하트 주차장 건너편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중앙일보건물2층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프레저의 제과점 옆

33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민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AIR PREMIA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Wonderful TOUR
2026 Yearly Schedule

06/05~06/1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마감	13박 14일	\$5990+항공
06/08~06/18	북유럽 4개국 마감	10박 11일	\$49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09~06/19	시그니처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9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9	시그니처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990+항공
06/21~06/30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	10박 11일	\$2990+항공
06/24~07/05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7/01~07/06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마감(영어)	5박 6일	\$2290(항공포함)
07/03~07/06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0	아이스랜드&스코틀랜드&노르웨이 크루즈 \$3650+항공	9박 10일	
08/04~08/17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7~08/17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3~08/20	프리미엄 알래스카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1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8/28~09/04	알래스카 크루즈 2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9/04~09/07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10~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3190+항공
09/28~10/11	독일일주	13박 14일	\$69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29~10/06	정통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10/05~10/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590+항공
10/08~10/17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마감	9박 10일	\$1380(인사이드), \$1680(오션뷰)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10/13~10/23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20~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22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4~11/05	호주 피지 뉴질랜드	12박 13일	\$3799+항공
10/27~11/06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9	지중해 크루즈 마감(영어)	12박 13일	\$3490+항공(인사이드), \$3990+항공(오션뷰)
11/03~11/14	이집트&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03~11/15	이집트&요르단	12박 13일	\$3299+항공
11/18~11/29	파타고니아	11박 12일	\$9599+항공
11/25~11/29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2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2/23~03/10/27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Imagine your Korea
고국일주
제주 롯데 리조트와 남해안 오션뷰의 최고급 5성 호텔 숙박, 엄선된 각 지방의 전통요리와 특선요리
주요 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모두 섭렵하는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
다녀오신분이 다시 원하는 탑여행사의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는 타사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노옵션, 모두 포함
10박 11일(제주포함)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2490+항공**

2차 6월 21일~6월 30일 (영어) **여행지** 인천/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3차 9월 15일~9월 25일

4차 10월 13일~10월 23일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산방산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비닷가 호텔**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프리미엄 다이닝

5차 10월 20일~10월 30일

노르웨이 단풍 일본 크루즈
10/7(요코하마 출발)~10/18(인천 귀환) 11박12일
\$2609(인사이드) \$3069(오션뷰) \$4289(발코니)
모국 10월 20일 상륙으로 한국과 일본의 단풍을 만끽하세요.

TOGETHER in KOREA
한국의 매력을 한번에! 한국의 전통, 자연 역사를 담은 감동의 일주 코스.

한국어 투어 (2인 이상 출발) 서울 출발-전주-순천-여수-진주-통영-거제 부산-제주-부산-경주(유네스코)-포항-속초

영어 투어 (1인 이상 출발) 서울-공주-전주-광주-보성(녹차밭)-순천-부산 경주(유네스코)-대구-안동(하회마을)-평창-양양

한국의 뿌리와 풍경을 따라 맛과 멋,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전통, 역사, 자연여행.

내륙 6박 7일 \$1970 **토출발** 동해안 3박 4일 \$1200 **화출발**
서해안 3박 4일 \$1200 **토출발** 전국 15박 16일 \$4500 **매일출발**

TMCI 고국 건강검진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경희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61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 \$990/여 \$111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강남) 남 \$600/여 \$650

현대아산병원
한양대병원
가천대일병원

대한민국의 숨겨진 섬 **울릉도**를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방법

1. 울릉크루즈 \$759
대아 리조트 울릉도 & 독도 택시투어 4일
울릉크루즈 1박 + 울릉도 2박(대아리조트)
2인 이상 출발/단독투어/노쇼핑

2. 울릉크루즈 \$699
비치온 호텔 울릉도 & 독도 4일
울릉크루즈 1박 + 울릉도 2박(비치온 호텔)

2026 성급 여호수아 +아미시마켓 당일
단체 문의 환영
6/4(화정), 6/25 7/16, 8/6 8/27, 9/17 **\$199**

인생 바티칸트 크루즈
지중해 크루즈 **마감(영어)**
12박 13일 | 10/28~11/9
\$3490(+항공, 인사이드), \$3990(+항공, 오션뷰)
NCL 하와이 크루즈
8박 9일 | 4/24~5/2/27
\$3490(+항공, 오션뷰)

탑이 드리는 선물
1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판매
2 USIM / eSIM 무료 증정! (30 Days)
• 한국여행-항공권-교과 건강검진 구매시 데이터 1GB+무제한 통화 USIM 또는 데이터 10GB eSIM
• 유럽 패키지(원더풀 투어) 구매시 데이터 10GB eSIM 또는 무제한 통화 USIM
※ Cell phone이 unlock된 본인에 한합니다.

동부투어 6월 10일~7월 25일 까지 월드컵 특수기간으로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관광이 가능합니다.

미동부&캐나다 5박 6일 \$1350
출발 확정: 6/8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출발 확정: 6/22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키리온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 1박 2일 \$399
원하는 유지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시씨 \$100
매일 수시 출발
확정일: 5/28, 5/3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투어
서부 완전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4대 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골드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골드
5대 캐넌, 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골드	코스타리카 연환 4박 5일 \$1190+항공 4인 이상 수시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골드	출발확정: 6/8, 6/22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마운틴 러쉬모어 크레이지호스 3박 4일 \$1040+항공 출발확정: 7/3, 9/4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골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정원오 “일 잘하는 시장 뽑아야... 4선 오세훈 부동산 남탓”

6·3 지방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7일 부동산 세제 등과 관련, “시민과 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시민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캠프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해 시민과 당의 입장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후보는 최근 “은퇴한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재산세 증가분을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번 서울시장 선거 성격을 규정하자면.

“일 잘하는 시장을 뽑는 선거다. 서울에 산적한 일들을 일사천리에 착착 풀어나갈 시장이 필요하다.”

- 주택 문제가 가장 예민한 현안 같다.

“공급이 우선이다. 2027년까지 8만 7000호, 2031년까지 최소 36만 호를 착착 개발해 공급하겠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방안도 민주당과 협의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선 연간 5만 명에게 월 20만원씩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겠다.”

- 야당에선 박원순 시장 재임기 공급 절벽을 언급한다.

“오세훈 후보가 매년 8만 호 공급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36만호 공급 계획, 당과 논의 끝내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추진

오, 8만호 공급 약속 매번 못 지켜 시종일관 네거티브, 토론 가치 없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빌딩 선거 캠프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정 후보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이 최우선이다. 철도 교통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고 현장을 보고 느낀 문제점이 있다.

“이태원·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

무다.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철근 누락 이슈도 집중 거론 중인데.

“감리할 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고, 문제가 서울시에 보고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 공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 문제다. 리더가 안전불감증이면 공무원들도, 공사 관계자들도 안전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 후보는 자서전이 없는 정치인이

다. 출간한 저서도 성수동 개발 등 구청장 재임 시 정책 비하인드 스토리 중심이다.

정 후보는 “제 활동 기록들은 남아 있다. 시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 정원오의 과거 삶에 대해 알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 과거 폭행, 토론 회피 논란도 일고 있다.

“시종일관 네거티브만 하면서 토론 하자고 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다. 토론을 흑색 비방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응할 수는 없다.”

- 성수동 개발 경험이 도심 양극화 해소 정책에 도움이 될까.

“단순히 교통만 뚫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업무지구가 생겨야 주거 지역도 발전한다. 성수·왕십리·청량리(동북부)와 신촌·홍대(서부) 축에 산업무지구를 구축하겠다.”

- 구역을 지정한다고 기업들이 가질까.

“마케팅이 되고 인제가 있으면 기업이 온다. 또 기업이 투자했을 때 이익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수익성을 보고 기업 스스로 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 특히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한영기 기자

정부 “나무호 공격 비행체, 이란산 대함미사일 가능성 높다”

사실상 공격 주체로 이란 지목 외교부, 이란대사 불러 항의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공격당한 지 23일 만에 공격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지목했다. 나무호를 공격한 무기가 이란제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최종 판단하면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정부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기술 분석 결과(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비행체 엔진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감식 결과 나무호는 1분 간격으로 총



정부가 27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나무호 공격 비행체의 탄두. [사진 외교부]

2발의 비행체 공격을 받았다. 첫 번째 탄두는 불발했고(불폭), 두 번째 탄두는 폭발(기폭)했다. 덕분에 첫 번째 탄두는 다소 온전한 형태로 수거됐는데, 여기서 고폭 화약이 확인됐다. 엔진은 이란이 역설계한 터보제트 엔진으로 식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누르 미사일의 톨루(Toloue)-4 엔진이 가진 특징적인 부분을 구성마다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발사 원점도 이란을 가리킨다. 비행체는 나무호의 선미 쪽으로 날아왔는데, 피격 당시 나무호의 선미는 이란 방면으로 약 156도 틀어진 채 정박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부품 곳곳에서 이란 제조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이 발견됐고, 누르 미사일 특유의 하늘색 도장 등도 핵심 물증으로 공개됐다.

박 차관은 발표 직후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다.

윤지원 기자

주한미군사령관 “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dagger·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미국 육군 전쟁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학교 주관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

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수'로 표현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 가치를 내포한 것인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 자국 코앞에 자리 잡은 미국

동맹국(한국)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느낀 경계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데 쓰는 '비수'라는 입장을 시종 개선해왔다. 브런슨 사령관의 '비수' 발언은 결국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중시하지만 그 효용에 있어 북한발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보다는 대중국 견제 쪽에 더 주목하고 있

음을 보여준 발언일 수 있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의 '표제어'가 된 '동맹 현대화'와 연결되는 한미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H HOME 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료가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品格)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우메켄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우메켄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5월 31일까지

저도 우메켄을 받고 싶어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이벤트

가정의 달 행사 1:
동일 가격 제품
2개 구입 시

20% 할인

가족을 위한 선택, 5월의 혜택!

가정의 달 행사 2: 할인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3종 세트



\$399 > \$359



발효미네랄 L-칼슘 (\$69)

OR



100억 마리 유산균 (\$39)

OR



다마스크 로즈 핸드크림 2개 (\$30)

무료 증정

888-941-3311 umeken.com

OTC 메디케어 카드로 우메켄 제품을 구매하세요!

클레버케어 • 아스티바 •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 에트나 • 센트럴 헬스 플랜 • 휴마나 • LA 케어 헬스 • 몰리나



“둘째도 같은 병이면...” 희귀 유전자 검사 덕분에 안심했다

이건희기부금 통해 첫째 병명 진단
채종희 교수팀, 둘째도 신속 검사
“정확한 유전자 진단으로 가능해져”
비용 부담도 줄여준 가족들 “큰 선물”

다연이(가명·4)가 처음 병원을 찾은 건 생후 16개월이던 2023년 9월이다. 다연이의 부모는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아이를 걱정했다. 뇌영상 촬영 등 초기 검사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다. 진단명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은 가족에게 길고 막막했다.

진환점은 2024년 2월 찾아왔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기부금 3000억원 덕분에이다. 서울대병원의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에 지원돼 다연이와 부모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는 ‘트리오 전장엑솜 시퀀싱(Trio WES)’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수백만 원이 드는 고가 검사다.

마침내 다연이의 진단명을 찾았다. CPLANE1 유전자 변이에 의한 주버트 증후군이었다. 주버트 증후군은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 유전자만 40개가

넘는 희귀질환으로, 세계적으로도 드문 병이다.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다. 정확한 유전자 진단이 이뤄져야 눈·신장·간 등 동반 이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주버트 증후군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다. 부모 양쪽으로부터 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발현된다. 자녀에게 25% 확률로 같은 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다연이 진단 당시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다연이 엄마가 이미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첫째의 병명을 찾은 안도감은 잠시, 곧 둘째 걱정으로 이어졌다. 다연이 아버지 이모씨는 “둘째도 같은 병일까 봐 불안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다. 채종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과·임상유전체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임상유전체학과·산부인과 협진 체계가 즉시 가동됐다. 응급 유전 상담과 태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수검사를 했다. 채 원장은 “정확한 원인 유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응급 양수검사로 태아의 이상



채종희 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로비에 설치된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부조 앞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태아에게는 유전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은 그제야 불안이 떨칠 수 있었다. 다연이 아빠 이씨는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야 마음

을 놓을 수 있었다”며 “둘째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큰 선물이 됐다”고 했다. 가족은 지난해 봄, 건강한 둘째 아이를 안았다. 이씨는 “희귀질환은 검사도 여

렵고 비용 부담도 커 부모 입장에서는 막막한 부분이 많다”며 “이건희 기부금 덕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둘째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 든든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희귀유전질환 가정에서는 같은 질환을 가진 아이가 또 태어날까 봐 다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원인 유전자를 명확히 진단하면 산전진단, 착상 전 유전검사 등 여러 방법으로 다음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많은 가족이 두려움을 이기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아 행복해하고 있다”며 “이 행복을 더 많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장은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라며 “유전자 진단을 통해 재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학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희귀질환 가정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스타 기자

베이비붐 ‘젊은 노인’ 몰렸다... 노인 일자리 대기만 30만명

130만명 신청... 5년새 38만명 급증

지난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 김혜영(63)씨와 김광선(61)씨가 공원 곳곳을 돌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점검하고 있었다. 사료와 물이 충분한지, 급식소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다. 길고양이 서식지와 개체 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도 이들의 업무다. 구청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중성화 대상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한다.

각각 10년, 28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

자다.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만 참여 가능한 공약형과 달리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외모로는 50대로 보일 만큼 젊지만, 은퇴 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김혜영씨는 “예순이 넘으니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광선씨는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런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대기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일부 사업은 지원자 10명 중 4명이 탈락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27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30만5622명으로 지난해(18만2046명)보다 67.9% 늘었다. 대기자 급증엔 참여 연령 문턱이 낮아진 게 영향을 줬다. 기존엔 법정 노인(만 65세)만 신청할 수 있던 일부 사업이 2019년 6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은퇴자들이 몰렸다. 해당 사업 대기자는 14만8977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고, 지난해(9만8498명)보다 51.2% 늘었다. 경쟁률은 1.7대 1이었다.

임금도 쏠림을 부추겼다. 이들 사업의 월 급여는 60시간 기준 76만1040원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

는 노인 일자리 사업(월 29만원)의 2.6배에 달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교육·직업 수준이 높은 ‘신노년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일 자리를 원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130만5772명으로, 최근 5년 새 38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전 세대보다 건강 상태가 좋고, 학력 수준도 더 높은 베이비부머가 노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생긴 변화다. 한 지역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지원자 중에 국장급 공무원 출신도 수두룩하다”며 “60세 퇴직 후 65세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이

들의 고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3851억원을 편성하고 일자리를 5만4000개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비중도 지난해 37%에서 2030년까지 42%로 높이고자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젊은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들이 유연하게 민간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채혜선 기자

LG전자 마곡센터서 칼부림... 범인은 협력업체 직원

LG 직원 2명 옆구리·팔 등 부상
LG “협력사 직원 해고 권한 없다”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칼부림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W5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의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LG전자 소속 임직원

이다. 피해자 두 사람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팔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는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총길이 23cm)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8분쯤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

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후 지하철로 도주하던 중, 오전 11시58분쯤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에 의해 검거됐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본사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약 2년간 근무한 A씨

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또 A씨는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에서 “LG전자 소속 팀장·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통명스럽게 굴었고, LG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재·김창용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라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지몬드 페넌슬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공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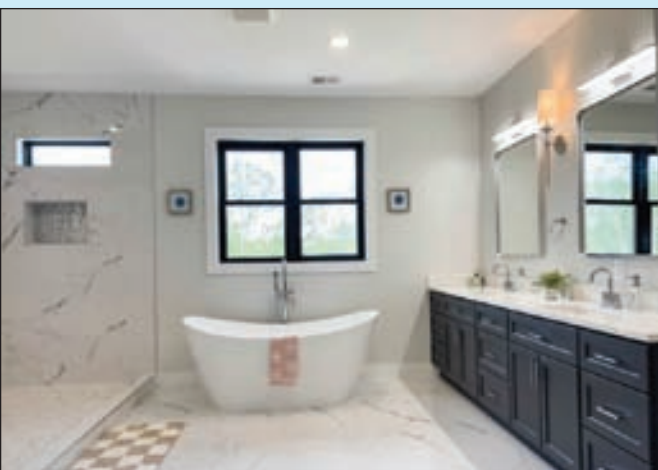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서울시 "서소문 고가 긴급철거 노동부 승인후 40시간내 완료"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불안한 상태로 남겨진 잔여 구조물을 신속히 철거해 위험 요인을 없애고, KTX 등 열차 통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공사 승인이 나면 즉시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서울시장에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7시 20분 노동부에 공중비계 철거와 상부 거더(보) 해체 관련 작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승인이 나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중비계 철거, 슬라브와 거더 해체, 전차선로 복구 등을 포함해 총 40시간이면 철거 작업이 완료되고 경의선 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철도 외 구간은 24시간 주간 철단·야간 인양 방식으로 작업했지만, 올해 3월 협의에서 철도 구간은 철도가 지나가니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만 작업하는 것으로 협의돼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한 달에 30일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있어도 실제로는 평균 17~18일 정도만 작업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철도가 놓인 구간은 도로와 달리 하부에 공간 확보가 어려워 안전을 위한 비방호벽 설치 등도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구조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중지한 뒤 추가 안전 조치를 위해 현장 점검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께 9번 슬라브 절단 작업 시작 뒤 약 1시간 후 거더 15번과 16번 부분에서 29mm가량의 처짐이 발생해 책임감리가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추가 처짐 방지를 위해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플레이트 공사를 시행했다.

KTX 등 131편 멈췄다... "내일까지 복구 목표"

붕괴사고 여파 열차 운행 차질

신촌~서울역 단전, 운행률 80%대 정상화때까지 SRT 입석 늘리기로 국토부 "30일 첫차-운행 재개 목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사고로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에 단전이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률이 8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작업자 안전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최대한 29일 밤까지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30일 아침 첫차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여러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주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는 당초 계획한 683회 중 552회만 운행돼, 운행률은 80.8%를 기록했다. 열차별로 보면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가 352회에서 307회(87.2%)로 운행 횟수가 줄었다. 고속열차(KTX, KTX-이음)는 331회 중 245회(74%)로 감축 운행됐다. 행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은 운행이 아예 중지됐다. 사고 수습은 현장 안전 확인, 구조물 안전성 점검, 전차선 복구 순서로 진행된다.

불편이 이어지자 코레일은 이날 "운행 중지 및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용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소정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지연이 예정된 열차표를 구매할 경우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복구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운행 정상화 시점까지 SRT 입석 승차 인원을 기존 열차당 15석에서 30석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레일 관계자는 "내일 새벽 중 경기도 고양 기지에 있는 열차 14대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용산역(지하), 노량진역을 경유해 서울역으로 우회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서울시냐 시공사냐...

시가 실질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 전문가들도 책임 놓고 입장 엇갈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처벌 대상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고 책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시공·감리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이다.

산안법은 통상 공사를 발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에 사업을 맡기는 순간 공사 현장은 시공사의 관리 영역이 된다. 다만 서울시를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총괄한 도급인으로 볼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관리하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3일 인천항

삼전 합의안, DX 21%만 찬성 성과급 노노 갈등 시작됐다

(비반도체 사업부)

삼성전자 노사가 5개월간의 진통 끝에 임금 교섭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27일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2026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찬성률 73.7%로 가결된 후 사측과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1일 노사 상향례로 임금 교섭이 시작된 지 167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종료된 찬반 투표에서 전체 투표 인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투표율 95.5%)이 참여해 4만614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국민과 주주, 고객 등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으로 ▶2·3차 중심 중소 협력사 지원 ▶취약계층·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인공지능(AI) 인재를 위한 산학협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악의 생산 차질은 피했지만 재계에선 합의안 가결을 '새로운 갈등의 서

막'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에 따른 노노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이번 표결에선 반도체(DS)부문 소속이 대다수인 초기업노조에선 80.6%가 찬성했지만, 가전·스마트폰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붕괴 징후에도 12시간 방치... 사고 1분 전 무궁화호 지나갔다



붕괴 5분 전에는 KTX도 지나가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통제 안 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점부터 붕괴까지 12시간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추가 구조 보강 대신 임시조치와 보고, 회의 등으로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서대문구 미군동 서소문 고가차도 슬래브(상판) S9 구간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길이 28m의 S9 구간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부분 7m가량만 남겨두고, 나머지 구간을 가로 방향으로 길게 잘라내는 작업이었다. 슬래브는 교각 위에 놓인 거더(보)가 떠받치고 있다. 작업자들은 해체를 위해 거더와 거더 사이의 슬래브를 절단하고 있었다. 폭 15m인 서소문 고가에는 총 16개의 거더가 설치돼 있다.

작업 시작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30분쯤 끝부분인 15·16열 거더 중간에서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 인접한 14열 거더와는 2.9cm의 단차(차이)가 측정됐다. 현장에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한 뒤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해 절단 부위에 플레이트(철재판)를 덧대 고정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 약 5시간 뒤인 오전 7시30분 유선보고가 이뤄졌고, 대면보고와 감리단장·현장소장 등이 참여한 현장점검이 진행됐을 뿐이다. 철거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 내부에서도 상황 공유가 늦어졌다. 당시 임춘근 도기본 본부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시공 오류' 문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중이었고, 사고 사실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한다.

결국 현장에서는 추가 구조 보강 없이 시간이 흘렀고, 이날 오후 1시40분쯤에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안전진단이 진행됐다. 그러다 결국 오후 2시33분쯤 거더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안전진단에 참여했던 공사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시 공무원 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석중 한국도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단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구조물이 부러진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진단 전문가가 상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항상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전문가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보강 작업을 하려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전제가 먼저 확인돼야 했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합동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상 징후 발견부터 붕괴까지 약 12

시간 동안 주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구간 바로 아래로 KTX와 경의중앙선 열차, 차량 등이 수시로 오가는 데다 3일 연속 비 예보까지 겹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부 철도 구간의 하루 열차 통과 횟수는 약 300회에 달한다. 사고 현장 인근 빌딩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붕괴 1분 전에 무궁화호, 5분 전에 KTX 열차가 지나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 운행을 이틀간 통제할 상태에서 집중 철거공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작업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욱·한은하·이아미·김준영 기자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따른 열차 운행 중지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6일 붕괴 사고 1분 전 무궁화호 열차가 차도 아래 선로를 지나는 상황에서 공사 관계자 등(빨간 동그라미)이 상판 슬래브 위에 모여있는 모습. 사상자 6명은 상판과 '거더'(콘크리트 보) 사이에 있었다. 김중호 기자, [사진 독자]

전문가 "해체계획서 잘못 작성됐거나 작업방법 제대로 안 따랐을 가능성"

6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구조물로 올라간 직후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작업 재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담당 팀장이 '거더'(교각 등을 떠받치는 보) 사이에 올라갔는데, 하중이 가해지자 곧바로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2시30분쯤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cm 단차가 발생해 철거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를 점검하기 위해 투입된 13명의 전문가 등이 동시에 구조물에 들어섰고, 그 뒤 붕괴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외부 전문가를 동원한 안전진단은 슬래브가 내려앉은 26일 오전 2시30분부터 약 12시간 지난 뒤인 오후 2시쯤 본격 시작됐다. 오전엔 시공사 등이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미 약해진 구조물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여러 명의 진



27일 김병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관계기관 합동회의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단 인력이 올라가니 붕괴 위험이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세부 공사 지침인 시방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소문 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 시방서'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짐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했다"며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작업 절차를 어긴 건 없다"

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획 수립부터 시공·감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결함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시공사와 감리단뿐 아니라 계획서를 짰 엔지니어 회사, 이를 감독한 서울시까지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붕괴가 일어났을 리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고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해체작업 계획서 자체가 잘못 작성됐거나, 현장에서 계획서상의 작업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는 2019년 하부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다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고 지난해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27일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검찰도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오상권·김예정 기자

선거 코앞, 주목받는 중처법

갑문 보수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를 단속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자로 판단해 최준욱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남석 변호사는 "계약서상 해체 공사에 있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느냐 등에 따라 완전히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처법 역시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시공을 한 건 공사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올라가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시는 고가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사고 전 위험 징후를 보고받고도 작업중지·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김보름·최서민·조수빈 기자

DX 직원들의 불만에 법적 분쟁도 예고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노 사장은 이날 사내 메시지로 "사업 환경과 업황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상

황에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DX 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습니다"고 했다.

합의안을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도 매섭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산정 과정에 주주총회 결의가 빠진 점 등 절차적 위법성을 들어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우림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고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압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압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치골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텀블러’와 ‘통컵’

2014년 10월 ‘통컵’이란 말이 발표됐다. 국립국어원이 새로 만들어 널리 알렸으니 ‘발표’가 맞다. ‘텀블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널리 알려지지도, 잘 쓰이지도 않는 건 아쉽다.

다행히도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엔 보인다. “굽과 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납작한 큰 잔”이라고 풀이돼 있다.

‘통컵’이 ‘우리말샘’에도 오르고 시간도 적잖이 흘렀다. ‘통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통컵’을 팔기도 하는 카페에선 더더욱 ‘텀블러’다. ‘텀블러’는 더 굳건하게 대세가 돼 간다.

‘통컵’은 미약할 따름이다. ‘통컵’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이 말을 애정하게 된 나는 마음이 쓰리다. ‘별다방’이란 별칭까지 갖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에서 ‘통컵’도 유통시키면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말을 다듬는다는 목적으로 많은 말이 만들어졌다. 그중 ‘통컵’은 흔치 않게 직관적이다. 모르는 사람이 ‘텀블러’를 들면 컵인지, 뭘지 모르지만 이 말은 바로 어떤 컵일 것이라는 걸 짐작하게 한다. 통나뭇처럼 통으로 된 상태고, 무엇을 담은 통이란 이미지를 불러온다. 투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래서 정감이 간다. “텀블러(통컵)에 물을 받아” “경품으로 통컵 3000개를 배부했다”처럼, ‘통컵’이 더 사용되기를.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재정칼럼

평생 일해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유



이명덕
재정학 박사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묵묵히 일하고, 자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도 기대만큼 재정적 여유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경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함께 커진다. 엔비디아, 삼성,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끊임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성과는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이때 주식을 가진 사람은 성장의 일부를 공유하지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켜보기만 하게 된다. 같은 환경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점점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늘면서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와 자신감이 함께 커지는데, 이를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상위 약 10% 계층은 그 아래 모든 계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 중 약 31%는 주식에, 또 다른 11%는 401(k)이나 IRA

같은 은퇴 계좌에 투자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보유한 주식 비중은 지난 3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상위 20%가 전체 주식과 펀드의 약 8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수록 이들은 더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부의 차이는 소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서 비롯된다.

테런스 오딘(UC버클리), 브래드 바버(UC데이비스) 교수가 6년 동안 6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활발하게 매매한 상위 20%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하위 20% 투자자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연간 약 6.5%포인트에 달했다. 즉, 더 많이 사고팔수록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움직이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지난 10년(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4.86%였다. 만약 10만 달러를 투자해 아무런 매매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자산은 약 4배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다. 특별한 능력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지 시장참여 여부가 결과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한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언제 들어갈지를 고민하며 타이밍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투자자보다 도박에 가깝다. 시장을 맞추려는 순간, 결과는 운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 방법 역시 복잡하지 않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며, 무엇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가혹하다. 소득 없이 30년, 길게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내야 한다. 이 시간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노후는 불안과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철학으로 시장의 성장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누릴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발언대

두 국가론,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다



이재학
LA 6·25 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규정하며 헌법까지 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남한 일각에서도 이를 변형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평화를 말하는 듯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아왔다. 헌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단된 민족을 언젠가는 자유 속에 하나로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 아래 6·25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결코 통일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며 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은 물론이고, 대남 선전과 체제 교란 시도 또한 계속되어 왔다. 오늘도 휴전선 철책 너머에

서는 적대적 군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통일의 의지를 접고 스스로를 두 국가로 규정한다면, 이는 역사 앞에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민들은 통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피난길에서도, 무너진 거리에서도, 수많은 이산가족의 눈물 속에서도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다.

이름 모를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유 또한 단지 남쪽 절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희생이었다.

그런데 일부에서 통일을 시대착오적 개념처럼

말하거나, 아예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한다. 남북의 체제는 다르고 긴장과 갈등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헌법적 가치와 민족적 소명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평화는 결코 굴종이나 망각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힘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며, 안보 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화는 자유를 지킬 힘과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통일의 문을 닫고 역사의 책임을 내려놓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일이다. 비록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꿈마저 잊어버린다면 민족의 미래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헌법이 지키는 통일의 약속, 우리는 그 희망의 불씨를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양일보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노동계 강성 투쟁, 기업의 로봇 전환에 기폭제 작용할 것”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 찬반 투표(22~27일)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사내외에서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성과급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N% 성과급 도미노' 사태로 번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76) 인하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진보 성향 학자였던 그는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8월과 12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사태를 수습한 경험이 있다.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초대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문답.

-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구조적 복합전환 국면에서 대기업 노조의 보상 체계 변화 요구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적 사안이다. 명분이 약한 '분배 투쟁'으로 산업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역주행하면 특정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 파업 직전에 타협했는데.
“엄청난 손실이 예상됐었는데 일단은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개별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끼칠 악영향이 클 듯해 걱정된다. 노조는 잃은 것 하나 없이 대부분 얻어냈다. 사용자는 당장 파업을 막아 급한 불 끈 것 외에는 노사 관계에서 관철한 것이 별로 없다.”

예외가 원칙이 될 수 있는 위험 우려

-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는 적절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데, 세금 낸 뒤의 당기순이익을 베이스로 한다면 몰라도 아무튼 성과급 문제는 불씨를 남겼다. 영업이익의 15%(45조원)라면 연구개발(R&D) 투자(37조원)를 훨씬 상회한다. 내일이 없는 집단의 요구나 다름없다.”

-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이 훼손됐는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원칙과 다른 예외는 특별하게 몇 개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다. 예외가 원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된다.”

- 기업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SK하이닉스에서 첫 단추를 끼웠으니, 삼성전지도 전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용자가 느낀 압박감이 컸을 거다. 지금도 성과급이 시행되고 있는데 차라리 성과를 내면 격려하는 특별 상여제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업이 그런 의미를 못 지킨 것 같다.”

노조도 '사회적 책임' 인식해야

- 노조 부위원장님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지”면서 “파업 강행으로 주가가 내려가”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겠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인식 한계와 전략적 오류를 드러낸 발언 같다. 자신이 몸담은 기업은 굴복시키거나 없애버릴 적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해야 마땅하다. 노조 간부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 인식이 없다면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 주주 단체들이 소송하겠다고 떠벌었다.
“의사결정 절차를 문제 삼아 주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다. 경영진이 노조에는 쟁쟁하면서 주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만만하게 본다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소송으로 갈지, 배임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배당금'을 거론했다.

“2018년에 민주당 당직자가 대기업의 수십조원 사내유보금을 나누면 국민 일인당 얼마씩 돌아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기업은 실적이 좋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더 내면 된다. '배당 정치'가 아니라 민생 정책에 쓰여야 한다는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다.”

장관의 노사 협상 직접 개입은 부적절

-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조를 비판했고, 친노동성향 정부인데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나.

“정부가 반도체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줄 과급력을 고려해 과유불급이라며 신속하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낸 것은 적절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한 시점과 경과의 문제가 있



노동부 장관 시절 항공사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를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해결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삼성 본관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부는 노사자율 원칙과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사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더 촉구하고 긴급조정은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했다.

- 장관 시절에 두 차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는데.

“긴급조정권 발동 후에 아시아나항공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켰고, 노사 자율로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결국 정부의 중재재정(강제 중재)을 통해 해결했다.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에 반발해 투쟁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노사 협상의 전면에 나섰다.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 주무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노사가 협상하고 정부는 독려하며 분위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법에 벗어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제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중재자 역할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장관·중앙노동위원장이 노사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던 평가를 못 받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을 것이다.”

- 지금 기업 경영권 존중은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기업은 맘대

로 때리고 주무를 수 있는 붕으로 취급된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차등의결권을 확대해 창업자나 경영자의 보유주식을 우대하는 제도,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 제도 등이 있다. 기업이정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벌 완화 조치 등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을 호기로 활용

- 세계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 분출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이번 성과급 사태와 노란봉투법의 연관성은.

“노조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엄청난 호기를 만나 활용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성과급이 노사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었는데, 노란봉투법은 교섭과 파업의 대상을 확 늘렸다. 노동운동의 기조가 된 ‘전투적 실리주의’는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노사

관계 기초를 완전히 바꾸는 악법은 폐기하고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다.”

- 산업 전반에 'N% 성과급' 요구가 분출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먹혔으니 협력업체든 하청업체든 노조가 이런저런 요구를 내놓을 것이다. 가뜰이나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요원의 들불처럼 요구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업들이 베풀어 내기가 힘들 것이다. 초호황의 호기를 이렇게 말아 먹으니 답답하다.”

- 노노 갈등과 격차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노동시장 양극화의 완화 또는 타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고해 나가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격차에만 초점을 맞춘 취약계층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종합적이고 담대한 노동개혁만이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2015년 노사-정의 9·15 합의(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사회적 대화협)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협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강성투쟁, 노동자 일자리에 부메랑

- 기업의 로봇 대체가 더 빨라질 텐데.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노동계의 강성 투쟁은 기업의 자동화 전환을 정당화시켜 주고 가속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노사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기술과 기계의 도전 앞에서 기업 생존과 일자리를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 하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노조는 현금성 보상 위주에서 인적 자본 투자 요구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은 노동자를 미래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이자 중재자로서 노사 자율 원칙과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 1960~70년대 영국병이 한국에도 번질까.

“그럴 개연성도 있고, 그럴 위험성도 있다고 본다.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 문제는 정치적 풍향에 대단히 민감하다. 노조 투쟁과 정치의 결탁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또다시 반복돼 걱정이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구조화하면 망국적 한국병으로 갈 수 있다.”

장세준 논설위원

GTAX Consulting Group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하자는 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내달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혀 돌아오는 성과급 확대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삼성전자 성과급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원·하청 격차 해소와 기업 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데 이어, 정부 주도의 토론회까지 열겠다는 것이어서 또다시 큰 파문을 부를 수 있는 발상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이익 재분배’라는 그의 논리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

만이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이란 개념 자체도 이익의 적정 수준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맞지 않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재분배에 간여한다는 것도 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미 삼성전자 성과급 파티의 후폭풍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확산하고 있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공사 현장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일부 주주들도 “세전 영업이익의 성과급 사전 할당은 상법상 위법 배당”이라며 합의안 무효 확인소송에 나섰다.

우리가 로또 호황에 도취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총력 지원 속에 필사적으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엄청난 이익이 났으니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고도 한국 반도체가 계속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것이다.

AI 악용한 유튜브의 ‘인격 살인’, 방지책 시급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025년 2월 숨진 여배우 김모씨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도 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법”이라고 주장했다.

1년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여배우와 교제했다고 폭로하고, 여배우가 사망한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고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여배우의 음성을 조작하고,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 받지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를 사실인 것처럼 편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대중에게 혼란과 사실 오인을 초래하는 AI까지 동원했다니 충격적이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대로라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

자 심지어 ‘인격 살인’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자극적 의혹이 폭로되면 대중은 폭발적 관심을 보이니 유튜브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정신적·사회적·직업적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타격을 받는다.

유튜브 채널들의 이런 불법적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채널들은 돈벌이에 직결되는 조회수를 노리고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왔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뒤 굵금 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흔하다. 타인의 비극이나 가십을 짜깁기해서 유튜브로 유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는 이미 한참 선을 넘었다.

유튜브가 유사 언론처럼 영향력이 막강해졌는데도 진실 검증 장치는 취약하다. 수익 창출을 위해 알고리즘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온 유튜브의 폐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다.

스벅, 혐오의 사이렌 울리다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스타벅스 사태를 겪으며 문해력(文解力)의 한계를 느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됐다. 요즘 MZ들은 ‘우천(雨天)시 강당으로 장소 변경’이라는 공지에 “우천시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헛웃음을 지었건만,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논란 앞에 나도 꼼짝없이 문해력 결핍의 소비자가 되고 말았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5·18 탱크데이’ 마케팅의 심각성을 뒤늦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6.3 지방선거의 여야 진영 논쟁으로 확산해 더 혼란스러웠지만, ‘설마 고의로 했겠어’라는 생각이 앞섰다. 탱크 텀블러의 용량 503mL(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 ‘탱크 듀오 세트’의 할인율 21%(5·18 계엄군의 발표일), 세월호 참사 10주기(2024년 4월 16일) 출시 스타벅스 로고(세이렌) 머그잔으로 의혹이 이어지자 좀 과하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과 경계의 수위를 좀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난 19일 전해진 스무 살짜리 래퍼의 공연 취소 소식이 영향을 줬다. 그 래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가사가 담긴 노래로 노 전 대통령 서거일(5월 23일)에 맞춰 공연하려다 제지됐다.

노무현재단이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공연장 측이 대관을 취소했다. 노래 가사에 ‘노무현처럼 jump(점프)’ 등의 조롱과 비하가 가득했다. 공연 시간은 오후 5시23분이었고, 티켓 가격은 5만2300원이었다. 노무현 재단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의 아픔을 모욕하려는 모든 시도에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롱과 모욕으로 무장한 래퍼는 인스타그램에 고개 숙이며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는 사진을 올렸다.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단지 유명세를 위해서 일삼아 왔다”며 “철이 없고 그저 재미로 했다”는 말은 변명과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공연 취

소 하루도 되지 않아 쓰인 스무 살의 반성문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을까.

유명세와 재미를 위해 혐오와 모욕과 조롱은 놀이처럼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욕인 줄도 모르고 욕을 해대는 아이들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참사 피해자 조롱을 SNS에 쏟아내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던 것이 영역을 확장해 대기업 마케팅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탱크데이와 세이렌 머그잔에 혐오와 모욕의 문법이 스며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로 개를 부를 때 쓰는 ‘도그 휘슬(Dog Whistle)’처럼, 꼬리 꼬리만 조롱과 혐오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들리지 않게 책임을 피해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있다는 얘기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지지자들이 SNS에 떨치고 공을 올려 ‘별공 썰렁지’를 확산한 것이 유사 사례다. 거기에 정몽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관여한 게 이번 사태를 키운 측면이

세이렌과 세월호 관련성 아리송 혐오 문법 확산하며 의심도 커져 공동체 위협하는 경보로 들어야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배를 난파시키는 신화 속 요정 로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발상은 음모론으로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혐오의 문법이 도사리는 환경에선 선뜻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 기업이라 불리는 회사라면 억울해 하기에 앞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 과정은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목숨을 바쳐 지킨 민주주의의 역사, 참사의 비극을 견디는 연대감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앞으로도 엄밀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스타벅스의 로고 세이렌은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의 어원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를 혐오 사회에 대비하는 사이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박용석 만평



parkys@joongang.co.kr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안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차 인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NHK 방송국,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이)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한약 (치료제, 보약)

교통사고 전문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편두통, 경부통,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근섬유통 등)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
- 구안와사 (안면마비)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등), 순환장애, 수족냉증
-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증상,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 ADHD (과잉행동장애), PTSD (외상후 증후군)
- 수술후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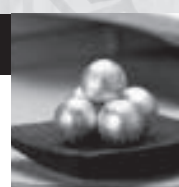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 국의대사(国医大师)
- 연정화(颜正华)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석사, 박사
- 임상 26년 경험



한국산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WWW.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전화 예약환자에 한함

바다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5월 스페셜 Special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삼강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ECO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향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돕는 찜질 효과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발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세일가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0도까지 채우고 따르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 Q**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자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일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EYE MASSAGER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 최우수 등급 매트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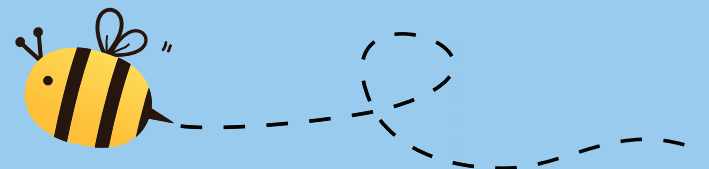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호르몬 Safety Zone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Y 28TH - JUNE 4TH, 2026



해태
HAITAI

LIMIT 2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1.06 OZ X 18 EA/BOX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H MART
 창립 40주년
 실속기획세트

\$12.99



정식품
Dr. Chung's Food

LIMIT 2

DR. CHUNG'S FOOD RICH SOY SOUP
정식품 진한 콩국물
 32 FL OZ X 4 EA/PKG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H MART
 창립 40주년
 실속기획세트

\$8.99

WE NOW ACCEPT HEALTH BENEFITS CARDS



nations benefits

OTC Networ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28, 2026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95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정부 대출 받아도 ... LA서 첫집 장만 버겁다

FHA론 중간소득 16만7천불
가주도시 다수 10만불 후반
중산층 주택 진입장벽 높아



전국에서 집값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가주에서 일반적인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금융 정보 사이트 디스퍼스트 하우스(This First House)가 최근 연방주택청(FHA) 대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LA-롱비치-애너하임 메트로 지역에서 승인된 FHA 대출자들의 중간 소득은 16만 7000달러였다(표 참조)

FHA 대출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상품으로, 일반 모기지보다 크레딧점수나 다운페이먼트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융자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구매한 LA 주택의 중간 가격은 70만5000달러, 중간 대출 규모는 66만5000달러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모기지 융자 가운데 FHA 대출의 비중은 11.2%에 불과했다.

즉, LA에서 첫 주택 구매자들은 고작 10명 중 1명꼴이며,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FHA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이들이 LA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만 달러 후반대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는 가주의 집값 자체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FHA 대출조차 중산층과 등 일반적인 가구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A를 비롯한 다수의 가주 지역에서는 FHA 이용 비중이 극히 낮았다.

또한 가주 대부분 도시에서는 FHA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주택 구매를 위해 고소득이 요구됐다.

샌호세 지역에서는 전체 주택 융자 가운데 FHA 대출 비중이 단 2.8%여서 전국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역 첫 구매자들의 중간 대출 규모는 73만5000달러에 달했다.

남가주 지역을 보면 샌디에이고에서 FHA 대출 비율은 9.1%, 구매자들의 중간 소득은 17만3000달러로 LA와 비슷했다. 리버사이드의 경우 31.0%가 FHA

가주 지역별 첫 주택 구매자 FHA 대출 현황(단위: \$)

지역	중간 소득	중간 대출 규모	중간 집값
LA-롱비치-애너하임	167,000	665,000	705,000
샌디에이고-올라비스타-칼스배드	173,000	705,000	735,000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온타리오	134,000	515,000	535,000
샌호세-세니베일-샌타클라라	193,500	735,000	785,000
샌프란시스코-오글랜드-버클리	169,000	615,000	645,000

자료: 디스퍼스트하우스

LA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내 집 장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매물 안배가 높은 주택

대출 대상자였으며, 중간 소득은 13만 4000달러로 비교적 낮았다.

가주 주택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 타주와 비교할 때 더 두드러졌다.

일례로 텍사스 매켈린 지역의 경우 전체 구매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FHA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지역 첫 구매자들의 중간 가구소득은 8만9000달러 수준이었으며, 중간 대출 규모는 24만5000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주택모기지공개법(HMDA)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됐으며, FHA 대출을 이용한 첫 주택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캐시 바이어나 민간 금융사를 이용한 구매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훈식 기자

가주, AI 일자리 위협 대처 나섰다

뉴섬, 노동자 보호 행정명령
직원 유지 기업 지원책 검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

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영업 담당자를 위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에게 주식이나 채권, 국부펀드 지원 등 보편적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그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아왔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킬지 전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새롭게 준비합니다. 뉴스나와 함께 성공하세요.
2026년 4월 14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계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버지니아

1.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채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1,4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3. **\$1,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티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4.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5,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토크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DC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가주 주택시장 지역별 양극화

해안·테크 중심 도시 활황
내륙 도시는 속도 둔화
리버사이드 바이어 마켓



집을 살 때 반려동물 친화적인 요소를 먼저 따지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다.

가주 주택 시장이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해안 지역과 테크 중심 도시는 매수 경쟁이 치열하고 내륙 지역은 거래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질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가장 뜨거운 주택 시장은 샌호세다. 지난 2월 기준 매물의 22.4%가 7일 이내에 거래됐다. 이 중 84%는 호가보다 높게 팔렸다.

전체 거래에서는 매물의 60.9%가 호가 이상으로 거래됐다. 3월 기준 활성 매물의 중간 시장 체류 기간은 17일로 거래 속도가 매우 빨랐다.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주택 가격은 148만 달러였으며 3월 한 달 동안 508건이 거래돼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샌프란시스코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전체 거래 주택의 55%가 호가 이상에 팔렸다. 활성 매물의 중간 체류 기간도 20일로 시장 경쟁이 여전히 강한 상태다.

샌디에이고에서는 판매 주택의 19%가 7일 안에 거래됐고 이 중 59%가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다만 활성 매물의 중간 체류 기간은 33일로 북가주 주요 도시보다 길었다. 전체 거래

중 31.5%만이 호가 이상으로 거래돼 과열 정도는 다소 낮았다.

LA도 수효는 여전히 높았지만 이전 보다는 바이어에게 선택할 여지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었다. 전체 거래 주택 중 14.4%가 일주일 안에 판매됐고 56.1%가 호가 이상에 거래됐다. 호가 이상으로 거래된 주택은 전체의 32%로 집계돼 협상의 여지가 있는 시장으로 꼽혔다.

새크라멘토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매물 중 24.6%가 7일 안에 거래됐으며 62.5%가 호가 이상에 판매됐다. 활성 매물의 중간 체류 기간은 26일로, 거래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반면 내륙 지역은 뚜렷한 냉각 신호

를 보이고 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12.4%만 7일 내 거래됐으며 약 49%가 호가 이상에 판매됐다. 활성 매물의 중간 체류 기간은 55일로 크게 늘어나 거래 속도가 둔화한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전반적으로 바이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매물이 시장에 더 오래 남아 있는 만큼 협상력이 커지고 입찰 경쟁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레드핀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의 중간 주택 가격은 약 63만2500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전년 대비 0.39% 하락했다. 지난 3월 거래량은 160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해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희 객원기자

전국 주택시장 'K자' 양극화 심화

고가 주택은 거래 급증
첫 주택 구매자는 위축

전국 주택시장이 뚜렷한 양극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가 주택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로 찾는 저가 주택 시장은 오히려 위축하고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 판매는 성장세가 가장 빨랐다. 반면 첫 주택 구매자가 많은 25만 달러 이하 주택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K자형 경제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고소득층은 자산 상승과 투자 수익 덕분에 소비와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높아진 생활비 부담 속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주택시장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충격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

돼 있으며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강세까지 더해지며 주택 구매 여력이 더욱 커졌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가 시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 통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반면 10만~24만 9999달러 가격대 주택 판매는 1.3% 감소했다. 25만~100만 달러 구간 역시 거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신규 주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위 주택건설업체 펠트그룹의 라이언 마셜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상위 이동 수요층과 시니어 주택 시장은 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부지 같은 고급 옵션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자의 아래쪽에 있는 첫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구매력 부담과 고용 불안 우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도시 주택경기 둔화 심화

20개 도시 중 절반 집값 하락
3월 지수 상승률 0.7% 그쳐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중 절반가량이 1년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3월 ‘코어모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전국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승률은 지난 2월(0.8%)보다 더 둔화했다.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것이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미-이란 전쟁 발발 여파로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됐다.

시카고(6.1%), 뉴욕(4.0%), 클리블랜드(3.0%) 등은 주택 가격이 강세를 이 어졌지만, 시애틀(-2.5%), 덴버(-2.0%), 탬파(-1.9%), 댈러스(-1.7%), 피닉스(-1.6%) 등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10곳에 달했다. 3월 자료 수집이 누락된 디트로이트의 경우 앞서 2월 들어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바 있다.

S&P 글로벌의 니콜라스 고텍 채권 거래상품 및 원자재 부문 수석은 “20개 주요 도시 중 절반 이상에서 주택 가격이 3월 들어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경기 둔화가 더 광범위하게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가주선 신축 주택 구매가 유리... 3만불 절약

10년간 2만9243불 절감
에너지·수리비 감소 효과

일반적으로는 신축 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경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기준 신축 주택 구매자는 20년 된 기존 주택 구매자보다 향후 10년 동안 평균 2만 9243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요 설비 교체 비용 감소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 주택은 최신 냉난방(HVAC) 시스템, 강화된 단열재, 고효율 창호, 새 주요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오래된 주택은 노후 설비와 단열 성능 저하로 인해 전기·난방비와 유

지보수 비용이 높다는 설명이다. 리얼터닷컴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유틸리티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신축 주택이 구매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비영리 연구기관 커먼센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평균 주거 유틸리티 비용은 연간 4934달러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1340만 건에 달했다.

신축 구매로 인한 절약 효과는 가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신축 주택 구매자는 20년 된 기존 주택 구매자보다 향후 10년 동안 평균 2만5335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가주의 2만9243달러보다는 적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구 대비 가주에서 에너지 소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절감 폭이 갈리는 모습이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은 북동부 지역 중 매사추세츠는 절감액이 약 3만9000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뉴햄프셔는 약 3만6000달러, 메인·로드아일랜드·버몬트는 각각 약 3만 4000달러 수준이었다.

리얼터닷컴은 “신축 주택은 초기 수년간 유지보수 부담이 적고 에너지 비용이 낮아 투자 안정성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신축 주택 구매자들은 업체 측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설사 워런티 혜택까지 제공될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까지 감안하면 실제 절감 효과는 추정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현식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차고 1, 3층 터운형 콘도, 학군(콜린 피델츠) 좋고, 교통, 생활 편리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에너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번듯한 평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 으로 매매	6/1 일주가능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IMS - McLean HS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타이슨스 DMV 근처에 위치한 잘 생긴 싱글하우스, 방 5, 화장 3.5, 현대 타국 외과관 \$6,200/월 렌트 (7/31 종료)	5/5 일주가능 Coming Soon	\$3,300 고품질/생활/학교/안전한 인기있는 타운하우스 단지, 방 3, 화장 3.5, Nice Owner
6501 Divine St, McLean, VA	셀러가急售할 만 조건으로 계약 완료, Seller So Happy 4/14 세팅먼트 완료	5/1 일주가능	\$4,900 명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화장 2.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Langley 권에서 제일 좋은 단지 북수 오피 중에서 경쟁 없고 특템, 바이어 So Happy 4/9 세팅먼트 완료	6/1 일주예정 PENDING	\$3,400 사랑하는 우리 교민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로리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달라고 연락 음, 4/3 세팅먼트 완료	5/1 일주예정 PENDING	\$4,800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3/17 세팅먼트 완료	4/21 일주예정 GENTLE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GENTLE	주재원 (3년)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실수령 인컴·목적 변동 시 가장 효과적

'연금 갈아타기' 적기는

기존 연금을 새 상품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을 경우 고민할 수 있다. 권유의 논리는 대개 단순하다. 요즘 이자가 좋아졌다거나, 새 상품의 혜택이 더 개선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기엔 근거가 약하다.

연금을 갈아타는 행위, 즉 1035 익스체인지(1035 Exchange)는 세금 없이 한 연금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새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 편리한 제도가 잘못될 이유로 활용될 때 발생한다. 단순히 금리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새 상품이 광고 문구상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갈아타기는 가입자의 실질 이익이 아니라 판매자를 위한 권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갈아타기가 실제로 말이 되는 걸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순서대로 따져봐야 한다.

▶갈아타기 권유의 단골 논리와 한계

새 연금 상품으로의 이전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논리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금리 환경이 좋아졌으니 새 상품의 이자율이나 캡(Cap)이 높다는 것. 둘째, 새 상품에 인컴 베이스를 즉시 20~30% 높여주는 보너스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솔깃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새 상품으로 옮겼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받게 될 평생 소득은 실제로 얼마나 커지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숫자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갈아타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인컴 베이스 보너스가 있다 해도 실제 인컴 지급률(Payout Rate)이 낮으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 캡이 높다고 해도 시장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그 캡은 실현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다. 갈아타기의 타당성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

▶현금 가치 성장부터 확인

갈아타기가 의미 있으려면, 현재 연금의 현금 가치(Account Value)가 충분히 성장해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연금 갈아타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적'의 변화다. 목적을 달리할 때 주도적인 변경이 필요하며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금리 상승·신상품 출시만으로 기존 연금 교체 부적절할 수도 서렌더 차지 잔존 여부 주목을... 새 상품 실질 지급률 확인해야

새 상품에 넣어야 더 큰 인컴 플로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수형 연금(Indexed Annuity)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지수형 연금은 주가지수 상승을 일정 한도(Cap)까지만 반영하는 구조다. 시장이 강세장이었어도 캡 이상의 수익은 잘리고, 하락장에서는 원금이 보호되는 대신 실질 성장은 크지 않다. 최근처럼 시장이 크게 올라서도 지수형 연금 안에서는 그 성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결국 현금 가치가 예상보다 많이 자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새 상품으로 옮겨봤자 투입 원금이 크지 않아 인컴 플로우가 의미 있게 커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존 상품의 현금 가치와 예상 인컴 지급액을 새 상품의 수치와 직접 비교해야 한다.

▶목적과 성향의 전환

성장이 주된 목적이어서 변액 연금(Variable Annuity)에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변액 연금은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사망 보장이나 소득 보장 등 다양한 보장 혜택(Rider)이 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혜택들의 비용(M&E Fee, Rider Fee 등)이 연간 2~3%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

비용을 감수할 만한 수익이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

이때, 이미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목표가 자산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인컴 플로우 만들기로 바뀌었다면, 낮은 비용 구조의 지수형 연금이나 고정형 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리스크 허용 범위가 달라진 경우도 해당된다.

시장 변동성에 더 이상 노출되고 싶지 않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굴러가는 연금 구조로의 재배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도 물론 서렌더 차지를 고려해 실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다.

▶실수령 인컴의 실질 증가

두 번째로 갈아타기가 의미 있는 경우는 새 상품으로 옮겼을 때 실제로 받게 되는 평생 소득이 더 커지는 경우다. 이는 단순히 인컴 베이스 보너스만 볼 게 아니라, 새 상품의 실제 인컴 지급률(Payout Rate)과 기존 상품의 그것을 직접 비교했을 때 판가를 낸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이 인컴 베이스의 5%를 평생 지급하는 구조라면, 새 상품은 동일 조건에서 얼마를 주는가? 보너스로 인컴 베이스가 25% 높아진다고 해도 지급률이 4%로 낮다면 실수령

액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현금 가치가 충분히 성장해 있어 새 상품에 넣는 원금이 상당히 크고 새 상품의 지급 구조도 경쟁력이 있다면, 이 경우는 갈아타기가 실질적인 인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비교는 반드시 은퇴 시점 또는 인출 시작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렌더 차지 꼭 따져야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할 것이 서렌더 차지(Surrender Charge), 즉 조기 해지 수수료다. 대부분의 연금 상품은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7~10년) 동안 해지 시 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구조다. 이 비율은 가입 초기에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 0%가 된다.

서렌더 차지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전 시 발생하는 손실을 새 상품에서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렌더 차지가 5%라면, 이전 시 현금 가치의 5%를 잃고 출발하게 된다. 단순히 서렌더 차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때도 많다.

새 상품 가입 시 인컴 베이스 보너스가 서렌더 차지를 메꿔준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 보너스가 실제로 인출 가능한 현금인지 아니면 인컴 계산에만 쓰이는 수치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너스는 후자다.

▶갈아타기의 답은 '비교'

연금 갈아타기가 타당한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기존 연금의 목적이 달라졌는가. 성장 중심에서 인컴 중심으로, 또는 고위험에서 저위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재배치는 검토할 만하다. 둘째, 새 상품으로 이전했을 때 실수령 인컴이 구체적인 숫자로 더 커지는가. 셋째, 서렌더 차지와 이전 비용을 고려해도 순이익이 발생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갈아타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특히 지수형 연금에 있었다면 현금 가치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단지 시장 금리가 올랐거나, 새 상품 광고가 그럴듯하다거나, 보너스 숫자가 크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쌓아온 연금 자산을 옮기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모든 금융 결정이 그렇듯, 연금 갈아타기도 답은 비교에서 나온다. 현재 상품이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새 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내 은퇴 인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숫자로 따져봐야 한다. 그 비교를 도와줄 수 있는 이해 충돌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켄 최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비엔나 콘도	스프링필드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339,000	\$645,000	\$595,000	\$1,120,000
방1/화1+Den,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방3/화2.55/차고1/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	방3/화3.5/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2026), HVAC 등등	방4/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F-1) - 단기취업비자(H-1B) - 종교비자(R)
- 투자비자(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미국 불교 인구 440만 명... 10년간 22% 증가

아시아 출신이 절반 이상
백인 21%, 히스패닉 8%
46%가 서부 지역에 거주
'삶의 방식' 이해도 많아

미국의 불교 인구가 440만 명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퓨리서치센터가 최신 자료를 종합해 2020년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불교 인구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약 22% 증가해 440만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약 9%였다. 불교 인구는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그쳤다. 이는 성인과 어린이를 모두 포함한 추정치다.

퓨리서치센터는 '2010~2020년 세계 종교 지형 변화'와 '2023~2024년 종교 지형 조사', '2022~2023년 아시아인 조사'를 분석해 불교 신자 통계를 종합했다.

불교 신자의 상당수는 이민자였다. 인종적으로는 아시아계가 다수다. 성인 불교 신자의 52%는 아시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 신자들의 주요 출생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태국이었다.

성인 불교 신자의 64%는 아시아계였으며 백인이 21%, 히스패닉이 8%였다.

불교 신자는 약 46%가 서부 지역에 거주했다. 전체 성인 중 서부 거주 비율이 24%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게 집중돼 있다.

반면 중서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비



2020년 기준 미국 내 불교 신자가 440만 명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하시엔다하이츠의 중국 사찰 서러사.

율은 전체 인구보다 낮았다. 불교 신자 성인의 중서부 거주 비율은 9%로 전체 성인 평균인 21%보다 낮았다. 남부 거주 비율도 29%로 전체 평균 38%보다 낮았다. 동북부 거주 비율은 불교 신자와 전체 성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교 성인은 16%, 전체 성인은 17%가 동북부에 거주한다.

불교 인구는 종교 이동이 활발한 특징을 보였다. 불교를 믿는 성인의 약 48%는 불교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며 개종을 했다.

반면 어린 시절 불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성인이 된 뒤 불교를 떠난 사람도 많다. 미국에서 불교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의 약 55%는 현재 불교 신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교 이

동 비율은 높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종교 이동 비중은 매우 작다. 전체 성인 기준으로 0.5%가 불교로 개종한 이들과 0.7%가 불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현재는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다. 종교 이동으로 인한 순감소는 약 0.2%다. 이 때문에 불교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종이 아니라 이민이다.

불교를 종교보다 문화적, 철학적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종교 지형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3%는 종교적 의미와 별개로 불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족 배경이나 문화적 전통, 철학적 영향 때문에 불교와 연결됐다고 느끼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2~2023년 아시아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시아인의 약

21%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도 불교와 가깝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답한 비율인 11%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아시아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 많은 불교 신자와 불교에 문화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이들은 불교를 삶의 방식이나 생활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불교를 교리와 조직 중심의 전통적 종교보다 유연하면서도 개인적인 삶의 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교는 19세기 골드러시와 철도 건설에 참여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신앙과 전통을 함께 가져오면서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뿌리내렸다.

안유희 객원기자

전 세계 불교 신자
10년 새 5% 감소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201개 국가와 지역의 종교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불교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전 세계 불교 신자는 약 3억 4300만 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020년에는 약 3억 2400만 명으로 줄어 약 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약 12% 증가했다. 또 다른 주요 종교 집단의 규모는 모두 증가했다. 세계 인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4.9%에서 2020년 4.1%로 낮아졌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종교 이동 현상이 꼽힌다.

전 세계 불교 인구는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은 편이며 자녀 수가 적다. 이 때문에 생애 말기에 가까운 성인의 비율은 높고 새로운 세대를 형성할 어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 성인이 된 뒤 불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리적 요인과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전 세계 불교 신자의 약 98%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약 40%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에 집중돼 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이 다섯 지역에서 불교 인구는 약 3200만 명 감소해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도 낮다. 2010년~2015년 기준 전 세계 불교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6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 평균 출산율보다 약한 명 정도 낮은 수치이며 인구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크게 낮다.

“기독교를 국교로” 13%→17% 증가

43% “기독교 가치 장려 찬성”

성인의 17%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퓨리서치센터가 14일 발표했다. 2024년의 13%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리더십 250’ 직전에 공개됐다. 이 행사는 미국을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의 국가’로 다시 헌신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정부가 공식 종교를 채택하지는 않되 기독교적 도덕 가치는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3%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38%는 정부가 기독교 가치를 장려해서도 안 되며, 공식 종교를 채택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뚜렷했다. 공화당이나 공화당 성향 무당층 가운데 27%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2024년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응답자 가운데 같은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8%에 그쳤다.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이 커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2년 동안 19%포인트 증가했다. 61%는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2002년의 52%보다 증가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는 55%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21%는 종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답했고 34%는 종교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54%는 정부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퓨리서치는 이 수치가 최근 4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칙필레이 가맹점 종교차별” 평등고용기회위 소송 제기

연방정부가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이의 가맹점 한 곳을 상대로 종교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안식일 근무 면제를 요청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것이 이유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의 칙필레이 가맹점 업체 ‘해치 트릭’이 여성 매니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EEOC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교단에서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면접 때 설명했다. 위원회는 해치 트릭 측이 처음에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토요일 근무에

배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경영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리자 직책을 유지하면서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EOC는 해치 트릭 측이 근무 시간이 줄고 임금과 복지 혜택도 낮은 직무로 이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해고됐다는 것이 EEOC 측 주장이다.

EEOC는 해치 트릭이 종교적 신념에 대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민권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 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Flipping 전문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은 20년 경력의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 주세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을 가장 매력적으로 디자인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실제 사례 광고, 스탠포드 싱글홈

주방 주방 바퀴벌레있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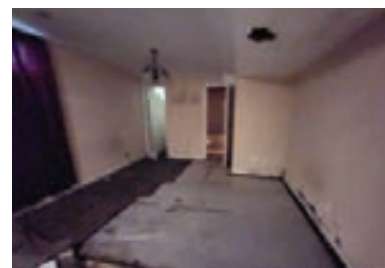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저분한 캐비닛제거후 주방 등 설치, 간단히 분위기를 바꿈.

지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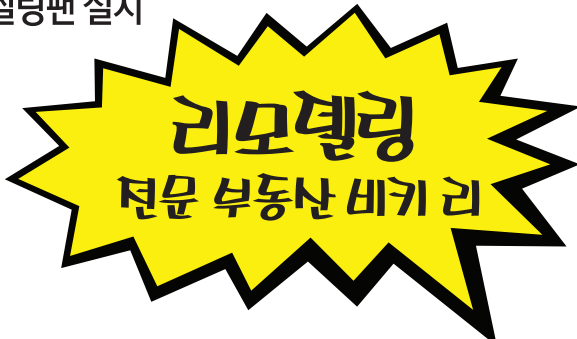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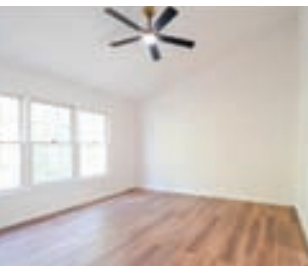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하 물난리난집, 지하 간이바, 밝은 천정등 설치.

안방 카펫에서 마루시공, 씰링팬 설치



목욕탕 넓은 샤워장설치, 그림같은 욕실



바이어: 어떠한 험한집도 사시면 깔끔하게 단장하여 드립니다.

셀러: 아무리 험한집도 이쁘게 수리하여 빨리 팔아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전문업체

임대면허취득, 임대 인스펙션, 납성분검사, 세입자와의 분쟁해결, HOA 위반사항 해결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절세 전략



준리
콜드웰뱅크 베스트 부동산

DST 활용 패닉 바잉·집중 리스크 ↓ 장기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 증식 기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1031 익스체인지’ 기간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다. 자산을 매각한 기쁨도 잠시 투자자들은 즉시 45일이라는 냉혹한 시계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짧은 기간 안에 대체 매물을 특정해야 하고 180일 안에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하는 엄격한 규정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하는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다. 투자의 본질은 세금을 피하는 것

이 아니라 가치를 증식하는 데 있다. 위기의 투자자를 구원할 명쾌한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준비되지 않은 매수 대신 ‘델라웨어 스태추토리 트러스트(DST)’라는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려. 45일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마땅한 단독 매물을 찾지 못했다면 DST를 활용해야 한다. 다수의 투자자가 대형 상업용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신탁 구조의 투자 방식이다. IRS로부터 1031 익스체인지의 대

체 매물로 공식 인정받은 구조로 개인 투자자가 단독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기관급 부동산에 지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강력한 무기는 ‘속도’와 ‘편의성’이다. 실사가 완료되고 셋업된 매물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며칠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전문 자산 관리사가 운영을 책임지며 투자자는 안정적인 월별 수익을 향유하면 된다. 여러 개의 DST에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집중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둘째 부의 대물림을 꿈꾼다면 절세의 끝판왕 ‘오퍼튜니티 존(OZ)’에 승부를 걸어라. OZ는 2017년 세제 개편안(TCJA)을 통해 도입된 연방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지역이나 개발이 필요한 낙후 지역을 ‘오퍼튜니티 존’으로 지정하고 투자하는 민간 자본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OZ 구역의 건물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퀘리파이드 오퍼튜니티 펀드(QOF)라는 특수 목적 펀드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일반 자금이 아닌 주식·부

동산·코인·사입체 매각 등을 통해 발생한 자본 이익을 180일 이내에 QOF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대상은 OZ 내의 부동산 개발 신축 혹은 기존 건물의 대대적인 개보수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 유예 원금 세금 감면 신규 수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투자한 QOF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 해당 투자로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1031 익스체인지가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으로 계속 갈아타며 세금을 미루는 방식이라면 오퍼튜니티 존은 10년을 기다려 수익 전체를 비과세로 가져가는 ‘장기 승부’이다. DST와 OZ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부동산 이야기

LA 바이어들, 달라진 집 선택 기준



캐티 리
드림부동산

첫인상보다 유지 비용·실거주 만족도 중시 보험료·공간 구조·ADU 여부 경쟁력 좌우

LA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 속에서도 인기 있는 매물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바이어들이 집을 보러 가면 “예쁜 주방”이나 “넓은 거실” 같은 첫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의 바이어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꼼꼼해졌다. 단순히 보기 좋은 집보다 “실제로 유지하기 좋은 집인가”,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까”를 먼저 계산한다. 특히 여러 차례 경쟁 오퍼와 높은 이자율을 경험한

요즘 바이어들은 집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최근 바이어들이 집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보험 가능 여부이다. 최근 거주에서는 산불 위험과 보험료 상승 문제로 인해 집 자체보다 보험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힐사이드 지역이나 오래된 주택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프리미엄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요즘

은 바이어들이 집을 보면서 “이 집 보험은 얼마나 나올까?”를 가장 먼저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두 번째는 지붕과 중앙냉난방 상태이다. 예전에는 인테리어가 조금 낡아도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바이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비용을 더 걱정한다. 특히 지붕과 중앙냉난방 시스템은 교체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쇼잉 중에도 지붕 상태나 에어컨 연식을 유심히 살펴본다.

세 번째는 자연채광과 공간 구조이다. 팬데믹 이후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일하고 쉬고 생활하는 중심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 바이어들은 단순히 집 사이즈보다 실제로 공간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창문이 많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오픈 구조·개방형 구조는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 가능성이다. 최근 LA에서는 추가 수입과 미래 활용성을 고려해 ADU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한때는 단순히 “뒷마당에 작은 집 하나 더 짓는 것”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 ADU는 주택의 가치와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높은 집값과 렌트비, 그리고 세대 구성의 변화 속에서 ADU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동네 분위기이다. 예전에는 학군과 집 크기가 우선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생활의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은 늘 변화하지만 바이어들의 시선은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요즘 바이어들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본다.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단순히 “예쁜 집”보다는 유지 비용과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냉전 이후 글로벌 방위 산업은 미국과 서유럽이 공급하고 아시아가 구매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었다. 이 질서가 바뀌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던 아시아는 생산과 수출, 나아가 방산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한국이 그 중심이다. 한국 방산의 부상은 2021년 이후 뚜렷해졌다. 전통적 방산 공급국들이 남긴 공백을 빠르게 파고들며 수출을 늘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K9 자주포와 천무수주가 이를 상징한다. 한국의 강점은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확장 가능한 공급망과 생산 능력이다. 이는 수십 년간 국방비 축소로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이 약화된 유럽의 현

환경재의 마켓 나우

동맹 재편이 만든 K방산의 시대

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수출 품목과 시장도 넓어지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약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협정을 체결했다. 지상 전력을 넘어 방공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한 계약이었다. 천공II는 실전에서 약 96%의 요격률을 기록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공중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비용 효율적 다층 방어 체계 수요가 커지고 있어 한국의 방공 분야 입지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방위 전략 전환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장기 방위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으면서, 동맹국이 자국 내에서 핵심 방위 시스템을 유지·생산할 수 있는 ‘자주적 회복력(sovrenign resilience)’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 방산 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2026년 초 미국 국방부는 유도 무기, 드론, 탄약 부품, 로켓 추진체 등의 해외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분산 생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스롭그루먼과 장거리 미사일 추진 시스템 협력 계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군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미 해군이 5월에 발표한 2027년 조선업 육성 계획에는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한 보조 함정 건조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주요 파트너로 거론

된다. 조선 사업은 긴 개발 기간과 유지보수가 동반되는 만큼 장기적인 산업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정학과 기술, 동맹 재편이 맞물리며 글로벌 방산 지형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한국은 지상 전력에서 방공, 해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넓히며 수출과 해외 공동 생산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수출 통제와 제재 리스크 같은 방산 특유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이 글로벌 방산 재편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BofA 글로벌리서치 한국 산업예·자동차 리서치 총괄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 703.486.6082

<p>알링턴 싱글홈 \$2,099,000</p> <p>5bd, 6bt, 4275sf, 2026년 신축건물, RT-50 가까운 지역</p>	<p>메나사스 싱글홈 \$840,000</p> <p>Pending 5bd, 3.5bt, UVA PG 메디칼센터 주변</p>	<p>메나사스 타운홈 \$650,000</p> <p>Pending 4bd, 4bt, 2676sf, 2018년 브레들리 스퀘어</p>
<p>페어팩스 신축 콘도 \$664,000</p> <p>Under Contract 3bd, 2.5bt, 2481sf, 2026년 6월 완공 예정 웨스트필드지역</p>	<p>페어팩스 싱글홈 \$955,500 Closed</p> <p>4bd, 3bt, 3038sf, 우순하이 도보거리 \$ 25,500+판매</p> <p>웨스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656,000 Closed</p> <p>4bd, 4bt, 하이슬 주변 \$26,000+판매</p>	<p>장미원 Associate Broker Licensed VA/DC/MD</p>

VA/DC Office (Vienna Tysons) 438 Maple Ave. E, Vienna, VA 22018
MD Office (One Bethesda) 7373 Wisconsin Ave. #1700, Bethesda, MD 20814

LONG & FOSTER REAL ESTATE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타협은 없다, 이정효의 '독기 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감독의 축구공식
높은 점유율로 상대진영 계속 압박
리스크 감수하는 플레이도 요구
선수들과 소통할 땐 거침없이 독설
노트북엔 분석 파일 가득 차랙 걸려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도 속
으로 눈물을 흘렸고, 칼을 갈았다. 아
주대 시절, 그의 동기는 '천재' 안정환
이었다. 주장으로 아등바등 후배들을
이끌고 올라간 결승, 주인공은 역시 안
정환이었다. 안정환은 홀로 2골 1어시
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
었다.

팀의 리더라는 이유로 대회 MVP 트
로피는 받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아닌 안정환의 몫이란 걸 알았다. 자
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트로피를 쓰
레기통에 처박아버렸다. 진짜 최고가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승부욕,
그리고 천재를 향한 뜨거운 열등감의
시작이었다.

지난 22일 수원 삼성 클럽하우스에
서 만난 이정효(51) 감독은 이제 2026
년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령
탑이 되어 있었다. 지난해 광주FC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려놓았
고, 올 시즌에는 명문 부활을 노리는
수원을 맡아 K리그2 2위로 이끌고 있
다. 그의 축구는 타협이 없고 집요하
다. 높은 점유율과 지지치 않는 에너지
로 상대 진영을 10번, 20번, 30번이고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은 동기생 천재 안정환을 향한 열등감을 자양분 삼아 2026년 한국 축구
에서 가장 뜨거운 사령탑으로 우뚝 섰다. 김중호 기자

끊임없이 두드린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용기 있게 골을 넣는 축구를 구

현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몰아세운
다.

그의 이런 완벽주의와 집착에 가까
운 열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
스널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연상시킨
다. 아르테타는 선수 시절 펍 과르디올
라 같은 천재적 재능은 아니었으나 영
리함과 리더십으로 버텼고, 감독이 된
후엔 노트북이 터질 정도로 전술을 분
석하고 타협 없는 직선적인 소통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얻어 올 시즌 아스널
을 우승시켰다.

실제로 이 감독의 노트북은 아스널
의 경기 분석 파일로 가득 차랙이 걸
릴 정도다. 지난 겨울 직접 영국으로 날
아가 강팀들의 경기를 직관한 그를 가
장 뜨겁게 만든 것 역시 아르테타의 라
커룸 스피치였다. 전구를 들고 "팀이
연결되면 빛과 열이 난다"고 강조하거
나, 패배 후 상대의 조롱 글을 화면에
띄워 선수들의 독기를 깨우는 아르테
타의 방식은 이 감독의 소통법과 맞닿
아 있다.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고 선수
들에게 직선적인 독설과 용기를 요구
하는 모습은 아르테타의 닭은필이자
한국판 변주다.

동시에 그에게선 야구계의 거목 김
성근 감독의 짙은 그림자도 읽힌다. 비
주류 혹은 무명 출신이라는 결핍, "비
스타 출신은 패자부활전 기회가 없다
면, 안 지면 그만"이라고 한다. 세상의
냉소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깨부수는
아웃사이더로서의 독기가 판박이다.

선수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도,
결국 제자들이 은퇴 후 자신보다 10m,
20m 더 앞에서 대우받으며 출발하길
바라는 깊은 속정이 있다.

그의 축구 철학을 담은 책 『정답은
없다』는 요즘 배경도 없이 안개 속을
헤매는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다.

책의 서두부터 천재 안정환을 언급
할 만큼 그의 독기는 열등감에서 싹뻗
지만, 그 열등감을 자신을 태우는 연료
로 썼기에 지금의 이정효가 있었다. 버
티고 노력한 끝에, 훗날 안정환으로부터
"내가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 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미소
를 지을 수 있었다. 세계 최고 회사인
삼성전자의 격에 맞게 수원을 다시 최
고로 만들겠다는 이정효의 거침없는
질주는, 여전히 지독하고 그래서 매혹
적이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영광은 "다
음 월드컵 사령탑은 이정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팬들의 목소리도 높아
지고 있다. 이 감독은 "지금은 대표팀
을 응원해야 할 때다. 선수들도 분위
기 반전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
을 거다. 특히 (수원 삼성 출신) 오현규
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
정환을 향해 칼을 갈던 청년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조용히 날을 세우고 있
을 것이다.

박린 기자

월드컵 '라스트댄스' 언급한 손흥민

"마지막 될 수 있어, 멋지게 장식할 것
선수·국민 하나로 뭉쳐야 16강 가능"

"제겐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습니다. 많
이 응원해주셔서 한국축구대표팀과
함께 한 저의 여정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사진)
이 27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헤리먼의 자이언스 밴크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팀 훈련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네 번째 월드컵 본
선 무대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은 "월드컵을
몇 번 나가는지는 중요
하지 않다. 이번 본선행
도 모든 선수가 2차 예
선부터 최종 예선까지
함께 노력해 얻어낸
결과"라면서 "처음
나서는 것처럼 설레
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월드컵은 출전
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의 축제"라면서 "국가를 대표
하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
지지 않는다. 그 의미 있는 무



보내기 아쉬운데...

대를 맡껏 즐기고 좋은 경기력
으로 멋지게 장식하겠다"고 각
오를 다졌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은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만만치 않은 나라
들과 조별리그 A조에서 경쟁
한다. 손흥민은 "목표로 정한 16
강은 선수단은 물론, 국민들까지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실현 가능하
다"면서 "강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지 않는다는 게 축구의 매력이다.
우리도 4년 전 월드컵에서 포르
투갈을 이겼고, 2018년에는 독일을
꺾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막바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디테일'을 꼽았다. 그는 "본
선에 오른 선수들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다. 하지만 그 한 장에 엄청나게 많
은 디테일을 담아낼 수 있다"면서 "특
정 상황에서 패스를 어느 방향으로 줄
지, 그 이후에 흐름을 어떻게 풀어갈 지
등 구체적인 부분을 훈련에서 정밀하
게 맞춰줘야 한다. 눈을 감아도 동료가
어디에 있을 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타공인 '월드클래스'지만, 손흥민
이 골맛을 충분히 보지 못 한 건 흥명
보호의 불안 요소다. 그는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서 전반

기 15경기를 치르며 득점 없이 도움만
9개를 기록했다. 때문에 '에이징 커브
(전성기를 넘긴 선수의 경기력 저하 현
상)'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선수 자신의 표정은 밝았다.
"경기를 잘못 하는 상황이라면 걱정할
만하다. 지금은 (득점이 없지만) 경기
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 그는
"다른 인터뷰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으로 '월드컵을 위해 (골을) 아껴 냈나 보
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팀을 먼저 생각하며 뛰다 보면 (득점
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피주영 기자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isystems.com/k1

intelis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 have to run; 이만 가야겠어

(It's Saturday morning and Roberta and Roger are talking in the kitchen -)

(토요일 아침에 로버타와 라저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Roberta: What are you doing today?
로버타: 오늘 뭐 할 거야?
Roger: I'm going to wash the car and then clean out the garage.
라저: 세차하고 차고 청소할 거야.
Roberta: The garage has needed to be cleaned for some time.
로버타: 차고는 오래전에 청소를 했어야 하는데.
Roger: I know. What are you doing today?

라저: 알아요. 당신은 오늘 뭐 할 거야?
Roberta: I'm going to get my nails done.
로버타: 손톱 다듬을 거야.
Roger: Anything else?
라저: 다른 건?
Roberta: (Looking at her wrist watch) Oh my God! It's almost 1:00.
로버타: (손목 시계를 보면서) 어머니! 한 시가 다 됐네.

Roger: What's the matter? 라저: 왜 그래?
Roberta: I have to go to the bank. It closes in ten minutes. I have to run.
로버타: 은행에 가야 되는데. 10분 있으면 문 닫는단 말이야. 빨리 가야겠어.
Roger: Okay. I'll see you when you get back.
라저: 그래. 은행 일 보고 와서 보자고.
.....
기억할만한 표현

**clean out (a space): 청소하다.
"I'm going to clean out the closets today." (오늘 옷장 치울 거야.)
*for some time: 오랫동안.
"He's been living in Los Angeles for some time." (그 사람은 LA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one) gets (one's) nails done: 손톱을 다듬다.
"She gets her nails done every Saturday morning." (그녀는 토요일 아침이면 손톱을 다듬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 양털로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카펫. 알라딘은 마법의 ~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3)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 (5) 귀지를 파내는 도구 (6)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짓 (8) 악보를 그릴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종이 (10)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냄 (12) 긴 외부 모양의 비옷. 눈비를 막기 위하여 덮는 덮개. 화물차에 짐을 싣고 ~로 씌웠다 (13) 휴대용 점심 (15)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16) 어린아이의 말로, 더러운 것. 아가, 그건 ~니까 만지지 마 (19) 펄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21) 다리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23) 한 살 터울로 아이를 낳은 아이 (25) 영양소가 아니면서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 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합물. ~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 A, B, C, D, E 등의 순으로 명명되었다 (26) 대부분 가시가 있고 잎은 없으며, 즐기는 공 모양 또는 원기둥 모양이다

세로열쇠

(1) 두 눈썹의 사이. ~을 찌푸리다 (2) 개나 돼지에 생기는 병. 흔히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제 고만 먹어라 ~ 날라 (3) 풀과 티끌. 지푸라기. 쓸모없고 하찮은 것. 목숨을 ~와 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 (4)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배. 거대한 ~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6)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집 (사람). ~ 사촌 (7)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8) 여자의 손위의 남자 형제 (9) 지각이 흔들리는 일 (11) 고스톱에서, 매조·흑짜리·공산의 열끗짜리 석 장으로 이루어지는 약 (12)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14) 솟이나 도자기·기와·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15) 성질 급한 사람이 여기서 승냥을 찾는다고 하죠 (17)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함 (18) 즐기 위하여 하는 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겨 하는 ~는 등산이라고 하죠 (20) 토목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 (22) 강이나 좁은 바닷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고 하는 곳 (23)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의 정을 느끼다 (24) 잠은 그대로의 성한 물고기

스도쿠

2	3	9				5		1
		6			2	3		9
		5	3	6		7	2	
9	5	2						8
1								
	8	3		2	4	9	5	
		8	9		3	4	1	6
3		4	6	8			7	
	6		2	4	7			3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6	8	7	4	2	1	9	5
5	7	2	1	8	9	4	6	3
9	1	4	3	5	6	8	2	7
7	5	6	4	2	1	3	8	9
2	3	9	5	6	8	7	4	1
4	8	1	9	3	7	2	5	6
8	2	7	6	9	3	5	1	4
6	4	3	2	1	5	9	7	8
1	9	5	8	7	4	6	3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month year <input type="text"/>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 메디케이드
- 캐시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5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창고 사무실 RENT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분
위치: 매나사스
(센터빌에서 15분)

창고(1700sf)
사무실(800sf)
*사용 가능합니다

(202)515-6746
(월~금: 9am~12pm)
office@ecinvest.net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인생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변화의 순간들, 그 모든 여정에
종합보험 전문가 **Paul Kim(수봉)**이 함께
합니다. 어려운 보험 용어는 쉽게,
보장 분석은 정직하게 풀어드립니다.

주요 서비스 항목

-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건강보험/메디케어
- 자산을 위한: 주택보험/자동차보험/비즈니스 보장
- 미래를 위한: 은퇴 연금/학자금 플랜

콜 투 액션(CTA)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 제대로 보장받고
계시는지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상담: 703-223-6961
카카오톡: paulkim4989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한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족)/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함께 세일즈 하실 팀원 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LED 교체 프로그램
-메릴랜드 BGE, PEPCO 서비스 지역
-기본적인 영어소통가능자
-Sales Training 제공 및 Transportation 지원가능
-연 10만불 이상충분히가능
문의: 410-599-7000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구인

베이비시터구함
입주하셔서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분
근무지: 피츠버그, PA
문의: 703-967-3963

한식당 헤반 (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 (숙식제공)
Tel: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 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이 파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6/08-6/12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버튼스빌싱글홈 1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프리 파킹,
유포 \$1,900
443-983-8100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 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싱글방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부동산 매매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 매매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완벽한 설비 시설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703-678-9790
영어: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월 1만5천순수익
-매매가 15만+인벤토리
-메니저먼트 가능
-피츠버그, VA
문의: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고정 단골 손님 많음
-월세 \$2500, 월순수익 \$6천 이상
-PT 일하실분 구함
문의: 703-907-9541 (문자 요망)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레노장 나간자리, 2,750 sf
문의: 804-519-1918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수익, 저렴한 렌트비
문의: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수익, 은퇴 예정
문의: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브 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월, 화, 목, 금 8시 - 5시 근무
무경험자 시간당 \$20
naturadent@gmail.com

첼트리 롯데마트안에 위치한 금산 인삼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판매하실 여자 직원
-주 40시간
-주말 가능 하신분
문의: 201-923-3886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e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2014a@gmail.com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1-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ea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Office Maintenance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KOREAN BBQ HYE BAN

한국식 BBQ 구이 전문 한식

헤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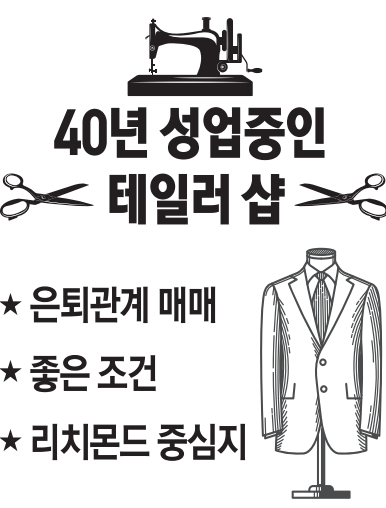
- 주방 쿡 / 헬퍼
- 웨이츄레스
- 숙식 제공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전화 or 문자
703.937.7261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중앙일보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niversa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패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직원 구함
니다.
-서버 (영어 필수), 스시 헬퍼
-경력자 페이 우대
-풀타임, 파트타임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트타임
▶ 571-991-4172

기타구인

베이비씨터 구함
입주하셔서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분
근무지: 피츠버그, PA
문의: 703-967-3963

스파에서 바다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이프드, VA
문의: 540-368-9699

경력있으신 분 병인 구합니다. 영어 약간
시간당 \$25, 타이슨스 코너
202-860-7680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 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대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크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합니다.
델레스 공방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 문의: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패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Faircrest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2.5, 차고2, 콜린 파울츠, 마루, 리모
델링, 펫가능, 66/28/286/29/50
교통요지
▶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 전체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임,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올 리모델링, 주차 공간 충분, 펫 가능
571-214-0404

패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이트한 부엌 (그래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킹 다수, 교통 편리
▶ 703-477-3114

콘도 렌트

업그레이드된 밝고 환한 콘도 \$1,700
방1, 화1, 새 나무 마루, 넓은 리빙룸, 나무가 보이는 경치, 편리한 1층, 새 페인트, 넓은 새 발코니, 물값 & Gas값 포함, 교통 편리
Falls Church, 애난데일 10분
▶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트 근처, 교통 편리
▶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방 렌트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 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게인스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워크아웃, 방2, 풀베스, 리모델링된 주방, 새 세탁기/건조기, 새 페인트, 새 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INOVA 뒤 타운홈 반 지하 렌트
방1, 화1, 세탁실, 가구 일체, 유포 \$800
6월 초 입주,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350-1986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 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 도미니언 벨리 라센시 골프장 안에 있는 싱글홈 2층 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 회원 가능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 하나 렌트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하

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 요망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 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 넉넉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I-95 1마일 거리, 가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방
고 조용한 뒷출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 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엔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 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 방, 개인 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 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사무실/점포 렌트

창고/사무실 렌트
매나사스에 있는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
분, 센터빌에서 15분 거리
창고 1700sf, 사무실 800sf 사용 가능
전화: 202-515-6746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 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 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 703-813-8949

1. 패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장교회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돈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 703-489-6926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1. 찬들리 하이 싱글 \$1,379,000
방4, 화4.5, 차고2, 큰덕, 최고 학군 (포플라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GIVING TREE PET RESORT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갈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플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트리초, 락키런 미들) 새 지붕 및 HVAC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바닥 업그레이드, 잘 관리된 집
2. 헌돈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케이트 콘도 \$390,000
방2, 화2, 콜린 파워초, 센터빌고, 교통중심
▶571-239-6054

1. 패어팩스 스톤케이트 콘도 \$438,000
방2, 화2, 차고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콜린 파월 초) 좋고, 교통 & 생활 편리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1. 우드브릿지 타운홈 \$560,000
방4, 화3.5 2021년 지은 새단지, 탁트여서 밝고 환한 구조, 나무 마루, 워크아웃 베이 스템트, 고급 부엌(업그레이드된 Granite Countertop & SS Appliance), 넓은 텍펜스 2. 클럽튼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진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알링턴 싱글홈 \$2,099,000
방5, 화6, 4,275sf, 2026년 신축 하우스
2. 메나사스 싱글홈 \$840,000
방5, 화3.5, UVA PG 메디컬 센터 근처
3. 패어팩스 싱글홈 \$930,000
방4, 화3, 3038sf, 우슨하이 스쿨 도보거리, 집 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센터빌 타운홈 \$595,000
방3, 화3.5, 2 assigned parking
지붕, 부엌(2024), 욕실(2026), HVAC 등 업그레이드된 집
2. 클럽튼 싱글홈 \$1,120,000
방4,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 된 집
3.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 + 덴,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 마루, 넓은 텍, 가스/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703-919-0472

1.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쿠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1.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2. 포트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사업체 매매

성업중인 세탁소(Dry Cleaners) 매매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30년 안정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완벽한 설비 시설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월 1만5천 손수익
-매매가 15만+ 인벤토리
-메니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고정 단골 손님 많음
-월세 \$2500, 월 손수익 \$6천 이상
-PT 일할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판티코 VA, 군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sf \$1.1M
2. 패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sf, 1층 대로변, 포토맥 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매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스태프드) 옷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쿠팡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라,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차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쿠팡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쿠팡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퀘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공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이 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6/08-6/12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형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키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인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 사유 없는 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카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 가스 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 방법: Sdmec.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선타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성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텍스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열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 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등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홀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6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담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한인사회 유일의 정론지
중앙일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표전화 (213)368-2500
안내광고 대표전화 (213)368-2525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한식 쿡 구함
중식 쿡 구함
알래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텍사스
Long Term
-RV Park
주인은퇴매매
연순익\$351,000 (25년Tax보고)
총매상\$ 457,600.매매 \$2.6M
(땅+건물+비즈니스 전체포함)
높은현금흐름 보장
NDA 작성 후 서류투명공개
mbrvparkllc@gmail.com
midlandbasinrvpark.com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

5월 가정의달



특별세일

5/31까지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당뇨, 비만, 충치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세요

모공 축소, 콜라겐 생성, 손상된 피부 복원, 홍조, 건조에 탁월한 효과

타이거 사카커피 무설탕 30/50/100 스틱

프랑스 고급화장품 센티알리스 30ml

사카커피 3 Packs (30 sticks) ~~\$36.97~~ \$30.00

[Made in France] 프리미엄 세럼 ~~\$430~~ \$104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과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야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832) 605-4890 · (281) 501-2623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1/2,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인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거라지 타운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구, 새 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DECK과 FENCE

\$500,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4, 화3 1/2, 2021년 지은 새단지, 탁트인 밝고 환한 구조, 나무마루,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고급 부엌 (업그레이된 Granite Countertop & SS Appliances), 넓은 Deck와 Fence

\$560,000



Contract

독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너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